

다니엘서 강해 미: 다니엘서 개요: 구약 연대기와 바빌론 국가

다니엘서 1-2장

요즘 미국 대학들, 반 이스라엘 데모가 심하다. 하마스를 지지하는 미국의 인텔리 청년들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과거에는 상상해 볼 수 없던 일

한국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잘 알려야 한다.

동부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4월 18일, 학생들이 대학 내에 텐트를 치고 야영, 반이שראל 데모를 행하는데, 이를 저지하려 한 경찰에 의해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 (*), (*)

학생 측은 이에 반발, 연대를 호소하는 운동이 확대.

이 대학과 함께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하버드, 예일 등 명문 사립대학 외에,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남부 텍사스주 등에서도 학생들이 잇따라 대학 내에서 숙식을 시작했다.

27일까지 적어도 약 20개교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 미국 신문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

각지의 항의에서는, 데모 참가자가 유대系 학생에게 "유럽으로 돌아가라"는 욕설을 퍼붓는 케이스도 보도되었다. [反유대주의]의 고조를 우려하는 소리는 높다.

컬럼비아, 하버드, 예일 대학: 아이비리그,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 여기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양육되어 나온다. (*), (*)

재림의 징조 중 하나,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일이 생긴다. 스가랴서 12장 2-3절(*)

지난 40년 간 앵글로 색슨 족, 영국, 미국이 이스라엘 보호, 성경 보존, 하나님의 복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함

이제 미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스라엘이 사면초가가 되는 날이 온다. 그때에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지금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 중 하나, 이스라엘

천주교, 개신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 결과 장로교, 감리교 위주의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지 못함. 1948년 5월에 나라를 세운 저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일단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 로마서 9-11장을 맑은 정신으로 읽기 바란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기 바란다.

구약 성경 39권의 책 가운데 세상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적그리스도, 천년 왕국까지 전체를 보며 주는 책은 다니엘서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를 공부하려고 한다.

다니엘서 개요: 바빌론과 느부갓네살

기록자: 다니엘, 기록 시기: 주전 606-536년경, 기간: 약 60년

수신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에 거하던 유대 백성

주제: 느부갓네살로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에 관한 예언과 역사, 모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를 뜻한다.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때까지의 온 세상 왕국의 변천을 미리 본 대언자로서 이방인 역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눅21:24).

내용: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바빌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대인들의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였다.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째 것은 주전 606년경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이루어졌으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때에 붙잡혀 갔다. 다니엘서의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이 있는 역사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 즉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기와 그분의 지상 사역, 로마 제국의 붕괴, 재림과 적그리스도 등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에는 온 세상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9장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때에 관한 '70 이레'의 예언이 들어 있다. 다니엘서는 12장, 357절, 11,602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2장(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핵심 절: “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2:44), 하늘의 왕국, 4:34-35(하나님의 주권)

핵심 단어: 왕국(57회), 핵심 구: “마지막 날들에”(2:28)

여섯 개의 왕국: 바빌론(2:36-48; 7:4), 메대/페르시아(2:32, 39; 7:5), 그리스(2:32, 39; 7:6), 로마(2:33, 40; 7:7), 적그리스도(2:41-43), 그리스도(2:34-35; 44-45; 7:9-14)

다니엘서의 그리스도: 1. 돌(2:35, 45), 2. 하나님의 아들(3:25), 3. 사람의 아들(7:13), 4. 메시아(9:25), 영적 교훈: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가져오신다.”

유대와 이스라엘의 연대기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연대기

킹제임스 성경 부록에는 표로 된 연대기와 그림으로 된 연대기(3장)가 들어 있다. (*), (*), (*) < (*), (*)

구약의 역사는 실제 역사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무료로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 (*), (*), (*)

구약 4,000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BC 1491 이집트 탈출

연대기 표(*)

BC 1095 사울의 등극(40년), BC 1055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됨, BC 1048 열두 지파의 왕이 됨(40년)

BC 1015 솔로몬의 등극(40년), BC 1004 솔로몬 성전 봉헌, BC 975 왕국의 분열(유다는 르호보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BC 721년 북왕국은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에 의해 멸망당함: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254년 동안 남 왕국 유다는 더 버텼지만 결국 바빌론 침공을 받음 (*)

바빌론 포로 생활(BC 606, 597, 586), 바빌론에서 귀환(BC 536) 총 70년간의 포로 생활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총 389년 동안 타락하고 우상 숭배함

바빌론

성경에 명사로만 총 286회 나오는 중요한 도시, 갈대아, 갈대아 사람들, 수백 번 더 나온

다니엘서를 공부하려면 바빌론에 대해 알아야 한다.

바빌론(Babylon)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 원래 이곳은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고대의 성경기록과 전설은 이것을 지지한다(창10:8-11의 니므롯). 어떤 이들은 그 이후에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나 느부갓네살이 이곳을 세웠다고 말하는데 세미라미스가 고대의 도시를 재건하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확장하고 잘 단장했다고 하면 이런 주장들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구 바빌론과 신 바빌론: 구 바빌론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함.

6대 왕인 함무라비(BC 1792-1750)의 통치,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함

(*) 함무라비 법전(- 法典, 영어: Code of Hammurabi)은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이다. 아카드어가 사용되어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1901년에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 팀이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수사에서 발굴하였다. 높이 2.25m의 검은 현무암의 돌기둥으로 윗부분은 부조가 새겨져 있고, 아랫부분은 아카드어 쉐기문자가 새겨져 있다.

신 바빌론은 BC 620년경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플라사르가 세움, 이것이 성경의 바빌론 다니엘 당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이 비옥하게 만든 광활한 평야 위에 세워졌다. 성벽의 둘레는 100킬로미터, 높이와 너비는 각각 90미터, 22미터였다고 한다(렘51:44-58). 성벽 주변에는 깊은 도랑이 돌아가며 있었고 도시의 네 면에는 25개의 못 문이 있었으며 도시 안에는 정원과 집이 매우 많았다.

느부갓네살의 궁궐은 둘레가 9킬로미터였으며 여기에 공중 정원이 있었다(단4:29-30). (*), (*) 공중 정원: 세계7대 불가사의, 계단식 발코니 위에 식물을 심어놓은 모습이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음. 식물들이 뿜어내는 푸른색을 보기 힘든 바빌론에서 인공적인 정원을 만들어낸 뛰어난 기술력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꼽히게 된 이유일 것이다. 메디아(메대) 왕국에서 바빌론으로 시집온 사랑하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 만든 것

느부갓네살의 통치 하에서 바빌론은 최고의 영예를 누렸으며 특히 천문학으로 유명했다. 위치적으로 바빌론은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와 이집트 사이를 오가며 무역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금을 걷는 일을 하기 위해 적합했고 그래서 상인들의 도시라 불렸다(사43:14; 겔17:4). 따라서 온 세상의 좋은 것이 거기로 흘러 들어갔고 그 결과 대언자들은 그것을 '큰 곳',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귀부인'(사13:19; 47:5; 렘51:41; 단4:20)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부패와 음란한 것들이 극도로 성행하게 되었고 벨, 느보, 네르갈, 메로다, 속곳브눗 같은 우상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러운 종교가 만들어졌다.

(*) 바빌론의 지구랏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예언되었고 성경은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준엄함을 잘 보여 준다(사13:1-22; 14:22; 21:9; 47:1-15; 렘25:1-38; 50:1-46; 51:1-64).

바빌론은 영원히 세계의 수도로 남지 못했으며 느부갓네살의 손자 즉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다리오가 이곳을 점령하였고(단5:31) 그리스 역사가들의 진술 역시 성경과 일치한다. 그 이후부터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수사를 자신의 왕국의 수도로 만들면서 바빌론의 중요성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바빌론은 한때 다리오 왕에게 반역하였으나 다리오는 다시 바빌론을 정복한 뒤 거기의 성문을 모두 부수고 성벽의 높이를 25미터 미만으로 줄였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통치 밑에서 바빌론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었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거의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 주후 4세기까지는 바빌론이 있던 곳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거기 거주하였지만(벧전5:13) 그 이후부터 바빌론은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유적이 발견된 것도 약 3세기 전의 일이다. 바빌론의 붕괴와 멸망에 대해서는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을 참조하기 바란다(사13-14).

또 신약성경에서 음녀 바빌론은 우상숭배, 미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집단의 상징이 되기도 했으며(계14:8; 16:1-21; 17:1-18; 18:1-24)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교황 체제를 가리킨다고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종교 체제

다니엘서 강해 8권: 느부갓네살 소개 및 다니엘과 세 친구의 순종 다니엘서 1-2장

요즘 미국 대학들, 반 이스라엘 데모가 심하다. 아이비리그 대학들, 이번에 코넬대 총장 사임(*),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침공 이후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총장이 사퇴한 것은 지난해 12월 펜실베이니아대 리즈 매길 총장, 올해 1월 하버드대 클라우딘 게이 총장 이후 세 번째다.

반 이스라엘 데모와 상관이 있다.

지금 유럽 대학들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 반전 시위(*), 미국과 동일한 구호(*)
지금 전 세계에 반 유대인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약탈을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재림 전의 이스라엘 상황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시122:6)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변영하리로다.

이스라엘과 세상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공부 시작

오늘 < >, 느부갓네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과 용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2세)(단1:1-2)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나부가 보호한다) 나보폴라사르의 아들로서 주전 600년경에 그의 뒤를 이어 갈대아의 왕이 된 사람. (*) 그는 예레미야서에서 느부갓레살로도 나온다. (*)

그는 3번에 걸쳐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멸절시킨다. BC 606, 597, 586

1차 침공 BC 606까지의 상황:

그는 이집트 왕 느고로부터 갈그미스를 빼앗았으며(*, 왕하23:29) 그 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치고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가(대하36:6) 후에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하에 다시 유대에 남겨 두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단1:1-2). 그들은 대개 왕족이나 귀족이었으며 바빌론 왕은 그들에게 갈대아의 말과 학식을 가르치고 후에 그들이 궁중에서 자신을 섬기게 하였다(왕하24:1; 대하36:6; 단1:1).

BC600년경에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죽자 외부에서 전투를 벌이던 느부갓네살은 급히 바빌론으로 돌아갔고 시리아와 유대와 페니키아와 이집트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갈대아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는 이 포로들을 여러 식민지에 분산시켰으며 또한 벨루스의 신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두었다.

2차 침공 BC 597까지의 상황: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처음 몇 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다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 뒤 3-4년이 지나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말았다(렘22:1-30).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혹은 여고니야) 역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주요 관리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 이때에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예루살렘의 주요 기술자들도 함께 끌려갔고 모르드개와 대언자 에스겔도 끌려갔다(에2:6).

여호야김: 렘36,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태운 자

유다의 마지막 왕들 5명, 선한 왕 요시아의 아들들과 손자(*)

아들들: 여호아하스(3달), 여호야김(11년), 시드기야(11년)

손자: 여호야긴(3달), 왕이 된 순서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11년), 여호야긴, 시드기야

3차 침공 BC 586까지의 상황: 느부갓네살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위해 만든 금 그릇들을 가져가고 여고니야(여호야긴)의 삼촌인 맛다니아를 왕으로 삼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시드기야는 9년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그 근처의 통치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반역을 일으켰다. 이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로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이집트의 파라오호브라가 시드기야를 도우려고 나오자 그를 대면하여 그의 나라로 쫓아버렸다. 이 일을 끝낸 뒤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며 마침내 시드기야의 제11년에 그곳을 함락시켰다. 시드기야 왕은 그때에 시리아의 리블라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정죄를 받았고 왕은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뺀 뒤 사슬로 묶어서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왕하24:1-20; 25:1-30; 대하 36:1-23).

느부갓네살의 통치 때에 바빌론 도시와 바빌로니아 왕국은 영예의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는 힘을 다해 바빌론을 치장하였고 그래서 이것은 그의 자랑의 하나가 되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단4:30)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그는 한때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짐승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단4).

(*) 다니엘서는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말한 세상 왕국의 흥망성쇠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불신 학자들이 여러 있다.

느부갓네살 기사와 그림

<https://www.findingdulcinea.com/nehuchadnezzar-king-of-babylon/>

느부갓네살의 침공과 유다의 몰락(1:1-2)

다니엘서 강해, 위어스비, 라킨 등의 책, 요약 정리한다.

가능하면 성경 구절을 읽고 절마다 강해를 하겠다.

수십 년 동안 대언자들은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우상 숭배와 부도덕,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압제 및 불의가 나라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날이 다가올 것을 예견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세기 전에 이사야 대언자는 이 메시지를 선포했고(사 13장, 21장, 39장), 동시대 미가도 그 짐을 함께 나누었다(미 4:10). 하박국 대언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합 1), 예레미야는 이러한 예언과 자신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았다(렘 20; 25; 27).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성지에서 이교도처럼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이교도 땅에서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원하셨다.

1-2절: 느부갓네살의 1차 유다 침공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 공의 실현 부재: 하나님의 백성이 제 구실을 못함(출19:5-6, 8; 사42:6).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 바빌론이 와서 노략한다(사39:5-7; 미4:10; 합1; 렘20, 25, 7). 예루살렘의 함락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에 대한 이교도 신들의 승리처럼 보였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신성한 가구를 가져다가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신전에 넣었다. 나중에 벨사살은 이교도 잔치에서 그 거룩한 그릇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들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단 5장). 예루살렘의 함락은 우상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주님의 승리였다! 그분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약속을 성취하셨다. 사실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켜 유다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메데와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빌론을 정복하셨다. 주님은 또한 이교도 통치자 고레스에게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

잊지 말라: 바빌론의 위치: 시날 땅(창11:2), 바벨탑 사건이 있던 곳

결국 유다는 느부갓네살의 세 번 침공으로 BC 606년에 멸망한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대언자 예레미야, 모든 상황을 보고 자세히 기록한다.

유다 패망의 원인(렘5:1-2, 11-13), 바빌론(렘5:15-17), 백성의 어리석음(렘5:21-22), 온 백성의 합작품(렘5:26-31)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겠지만, 불순종하면 그들을 징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흠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레 26; 신 27:1-30:20). 그분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빛"(사 42:6)이 되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방인처럼 되어 그들의 거짓 신을 숭배했다.

경건하지 않은 왕과 시민 지도자, 거짓 대언자와 믿음 없는 제사장들이 도덕적 타락과 민족의 궁극적 멸망의 원인이었다(렘 4:13, 렘 23:9-16, 대하 6:14-21).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과 이교도 바빌론 군대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인 선택을 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 주려는 핵심 메시지

우리는 어떤가? 대한민국 교회의 타락이 심각하다.

결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소수의 남은 자가 모든 세대에 있다. 포악한 느부갓네살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이를 위해서는 순종과 용기가 필요하다. 다음 주 설명

다니엘서 강해 03: 다니엘의 믿음과 순종이 역사를 바꾸다

다니엘서 1:2-21

전 세계적인 반 이스라엘 정서, 심지어 미국인들도 이스라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인류 역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1948년 5월 건국 이후, 거의 대다수가 불신 상태 텔아비브, 매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 20만 명 이상 참석(*), (*)

올해 이스라엘 인질들 때문에 안 한다. 대신 예루살렘에 가서 적은 규모로 한다.(*), (*)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

통곡의 벽 (*), (*)

이스라엘을 바로 알아야 한다. 마16:3,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갓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를 위해 다니엘서 공부, 위어스비 강해, 라킨 등

지난 두 시간, 바빌론 왕국, 느부갓네살 왕, 유다 소년들 포로로 잡혀감(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과 여러 소년들이 잡혀감(1:1)

주의 성전의 기구들 중 일부를 바빌론으로 가져다가 그의 신전 보고에 둬(2).

오늘 < >,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 믿음은 순종이다. 용기를 필요로 한다.

21세기 우리는 우리는 어떤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3-16절)

바빌론 왕의 정책은 정복한 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여 정부에서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왕은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의 기술을 자신의 행정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다. 예루살렘 함락 전후로 여러 차례 유대인이 바빌론으로 추방되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린 나이에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 대언자는 2차 침공 당시인 597년에 바빌론으로 보내졌고, 586년에는 성전이 파괴되었다.

3-4절: 바빌론 땅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 남은 자(Remnant)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수는 항상 하나님을 떠났다. 소수만 신실하였다(렘11:1-5; 사10:20-21)

이사야 대언자의 아들 이름 스알야습, 남은 자가 돌아온다(사7:3)

계시록의 일곱 교회, 예수님의 메시지, 어떤 교회든 남은 자가 있다. 이기는 자(계2:7, 11, 17, 24-28; 3:4-5, 12, 21).

우리 시대에도 바른 말씀, 교리, 교회, 삶을 추구하는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이 4명의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뛰어난 자들이었다(왕가의 씨, 지혜, 지식, 학문)

이들은 다 유다 지파의 좋은 집안 출신(3-4),

4-7절: 이들은 왕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철저히 바빌론 사람이 되어야 했다(땅, 말, 이름, 관습, 학문, 음식, 신까지).

이 아이들은 3년 동안 이 과정을 겪어야 했다(5).

다니엘(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은 벨드사살(바빌론의 벨 신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하나냐(주께서 은혜를 보이신다)은 사드락(달신인 아쿠의 명령대로 사는 자)

미사엘(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은 메삭(누가 아쿠와 같으냐?)

아사랴(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아벳느고(느보 혹은 느고의 종)

유대인들의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제거되고 바빌론의 이방신이 들어감

사46:1, 벨은 머리를 숙이고 느보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들과 가축들 위에 실렸고 너희 수레들에 짐이 무겁게 실렸으므로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짐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일반 학교에 다니는 크리스천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언어와 이름은 참을 수 있는데 문화는 어려웠다. 무화: 바빌론 사람들은 미신을 섬겼다.
 왕의 음식은 바빌론 신에게 바친 제사 음식이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에 위배가 된다, 특히
 고기에서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경우 큰 문제가 됨(레11: 17:10-16)
 코셔 음식 규정

8-16절: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12절의 콩을 보라, 채소가 아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세상과 동화되라는 압박

롬12:1-2, 이기는 사람과 동화되는 사람이 있다

1.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8절). 마음에 작정하는 일이 중요하다(잠4:23). 창39의 요셉(39:9)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a. 렘17:9-10, 시119:9, 11

2.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은혜롭게 처신하였다(잠16:7). 창39:20-23, 감옥의 간수와 요셉

a. 믿음 때문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롬12:18).

b. 다윗과 사울(삼상24:9-11, 14-15 특히 14)

c. 벧전2:13-25

d. 한 마디로 신사답게 예의 있게 행동하며 자기들의 과업을 신실하게 수행하였다.

e. 마6:33의 실행

f.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질문해야 한다.

g. 이것을 통해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3. 복을 받으려 하지 말고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다니엘 21일 기도(단10, 특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다니엘의 성공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은 선물이다(1:17-21)

17-20절: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성공을 주신다.

먹고살려면 훈련을 받아야 한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분의 선물과 도움을 얻어야 한다. 훈련과 교육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1. 하나님의 복 주심(17절): 이들이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학문과 지혜의 능숙함을 주셨다. 기도만 가지고는 세상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2:26).

2. 이들이 배운 것: 바빌론 종교, 점성술 등(지금 식으로 말하면 세속 학문)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Yes or No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행7:22,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사도 바울, 다니엘, 요셉

세상 학문을 악한 것으로 여기면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세상 안에 산다. 위대한 선진들은 세상의 학문을 주님을 위해 썼다(노래, 작곡, 연극, 영화 등). 그러므로 젊은이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한다(전9:10, 9:9; 9:4).

전11:9-10, 12:1, 13-14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다만 동화되지는 말라.

3. 왕의 점검(18-19), 직접 테스트하고 이들의 우수함을 판단함, 바빌론의 모든 학자들보다 10배나 나았다(20).

21절: 다니엘

1. 그는 고레스의 제1년까지 일하고(스1:1, BC 536), 제3년에 환상을 보았다(단10:1).

2. BC 606년에 잡혀갈 때 10-15세라고 하면 그는 적어도 82-87세 이상을 살면서 여러 왕들을 대하고 지혜자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선포하였다.

3. 또한 70이레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였다.

4. 장수가 꼭 복을 뜻하지는 않는다(스데반).
5. 상황이 어렵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른 것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롬 8:28; 살전5:24).
6.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인가,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인가?
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이 임한다(말3:16-18; 말1:6-8; 마10:28; 16:26).

결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소수의 남은 자가 모든 세대에 있다.

포악한 느부갓네살 치하에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이를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과 용기가 필요하다.

다니엘서 강해 4: 세상 역사를 계시하시는 참 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단2:1-13

다니엘서 12장, 유대인들과 세상 왕국의 변천을 보여 주는 위대한 책이다.

천년왕국, 12장은 유대인 3년반 대환난, 구약 성도들의 부활

지난주, 이교도 세상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함. 콩을 먹음

하나님의 은혜로 바빌론 전역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됨

믿음, 용기, 순종

오늘 < >,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위대한 장

2장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 역사를 보여 주는 great chapter이다.

2장에는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로마/적그리스도/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 있다.

2장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1.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영을 괴롭게 하심(1)

느부갓네살은 왕국의 미래 등으로 인해 잠을 설쳤다(1절, 단2:29),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풍요로우므로 잠들지 못하리라(전 5:12).

과거에 하나님은 종종 꿈으로 계시하셨다.

1. 창41의 파라오(잘생긴 암소 일곱 마리와 야윈 암소 일곱 마리, 좋은 곡식 일곱 개와 마른 곡식 일곱 개)

2. 마2:12, 13의 동방의 지혜자들과 요셉 등

지금은 하나님이 꿈으로 일하시는 때가 아니다. 대언 등의 직통 계시는 사라졌다.

히1:1-2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고전14, 예언을 사모하라. 하려고 하라.

개역: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흠정역: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지금 이 시간 직통 계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연습,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주어짐

암3:7-8의 오용 No!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대언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여기도 대언이다. 이런 말씀을 계시가 완전히 주어진 신약 시대에 적용하면 안 된다.

추가 계시는 없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신다. 완전한 말씀이 있다. 계시를 찾으러 다니는 자들은 마귀의 술수에 넘어진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렘23:25-32), 특히 29절

2.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심(2-13)

왕이 자기가 꾸는 꿈을 해석하라고 지혜자들에게 명령함(2-3)

지혜자들의 요청(4)

느부갓네살은 정말로 자기가 꾸는 꿈을 잊었을까?(5절)

아니면 꿈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바른 해석을 얻기 위해 지혜자들을 시험하려고 사라졌다고 말하였을까?

지혜자들의 대답(10-11절), 다니엘의 대답(27절), 느부갓네살의 말(47절)

정말로 잊어버렸다.

이교도들 중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재차 간청함(7)

느부갓네살의 대답(8-9)

이들의 말(10-11)

왕의 명령(12-13)

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심
단1:8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제압함(출7-12).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제압함(왕상18).

신약에서 바울은 키프로스에서 마술사 바예수를 제압함(행13:1-12).

4.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사41:21-23)

기독교의 위대함: 예언이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5. 대언자: prophet, prophecy(*)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대변인

(*) 옥스포드 사전: 1. One who speaks for God or for any deity, as the inspired revealer or interpreter of his will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해석하는 사람

구약 시대,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 모두가 대언자이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대언이다. 내용: 하나님의 경고, 회개 촉구, 일부가 앞날의 예언

그러므로 prophet, prophecy을 예언자, 예언으로 번역하면 성경을 망치는 것이다.(*).

신약 시대 초기: 성경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전달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 대언자들, 이들은 주로 믿음의 실행과 관련 있는 일을 하였다. 고전14장

예언이라는 말

원래 이 말은 대언을 뜻하며 대언 중에서 특히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 할 수 있다.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거하여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해 막연히 좋을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헛된 신탁을 받는 일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 횡행하는 개인의 길흉에 관한 예언은 성경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참된 예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또한 대언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참된 예언에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 (1)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합당한 시간에 공포된다.
- (2) 일어나는 사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예측되어야 한다.
- (3) 사람의 명철이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 (4)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달해야 한다.

성경의 예언들은 실제로 사건들이 발생하기 수 세기 전에 예언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람들의 역사와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들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처형과 유대인들의 흠어짐과 보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성경의 예언은 대규모의 예언으로서 성경 첫 부분에 기록된 가장 초기의 예언이 세상 역사의 끝까지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은 점진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시대에서 시대로 넘어가면서 발전하였고 같은 주제를 여러 사람이 예언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벧전1:10-11). 따라서 예언은 하나님의 일이며 단지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대언자들의 기록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며 연구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특히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들은 곧 그분께서 오실 때에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신구약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다.

그 예언 중 절정은 메시아 예언

왜? 하나님의 이 지혜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고전1:18-25).

1. 메시아 예언: 적어도 몇 백 개(초림과 재림)

1. 여자의 씨(창3:15; 마1:20; 갈4:4)
2. 베들레헴 출생(미5:2; 마2:1)
3. 처녀 탄생(사7:14; 마1:22-23; 눅1:26-31)
4. 메시아 앞에 나타나는 사자(사40:3-5; 눅3:3-6)
5. 대언자(신18:15; 행3:20-22)
6. 뿔기세택의 계열(시110:4; 히5:5-6)
7. 범죄자들과 함께 처형됨(사53:7; 마27:38)
8. 부자의 무덤(사53:9; 마27:57-60)
9. 대속의 죽음(단9:26; 막10:45)
10. 승천과 재림 장소 등(행1:11-12; 슥14:4; 12:10; 계1:7)

2.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예언 불가능

3. 예수님이 이런 예언들을 하나도 빠지 않고 다 이루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

4.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은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이미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왔다.

결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 성경을 통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세상에서도 종종 좋은 승진의 기회를 주신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등

창조자, 역사의 운행자,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바로 믿자. 바른 성경으로.

다니엘서 강해 15: 하나님께서 미래 이방인 왕국들의 변천 과정을 드러내심
단2:14-45

다니엘서 강해, 주인공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려주는 자신의 자녀들을 지켜 주신다. 이방 땅 바빌론에서도
지난 주, 느부갓네살의 꿈(*), 꿈도 사라지고 해석할 사람들도 없다.

갈대아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함, 왕의 호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드러내심(14-23)

하나님의 사람들 넷(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을 죽이기 위해 마귀는 자기의 모든 종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음(14). 마귀는 부러먹고 내팽개친다.

마귀는 죽음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박 속에 가두어둠(히2:14-15)

1. 다니엘을 위해 시간이 연장됨(14-16), 1장과 같은 종류의 일, 왕의 배정 음식
2. 믿음의 기도(17-19): 이들은 믿음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단6, 사자 굴, 9장, 자신의 백성을 위한
기도 참조), 그들은 바빌론에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다(왕상8:44-50; 단6:10).
오해하면 안 된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으로.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풍습
우리는 어디서나 무슨 자세로든 기도할 수 있다.

하늘의 하나님, 구약 22, 신약 2, 여기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
성경의 하늘(Heaven)

성경은 세 개의 하늘이 있음을 보여 준다. (*)

1. 첫째 하늘 - 새들과 구름이 거하는 곳.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으며”(렘4:25; 단4:12; 마6:26; 8:20 비교). 첫째 하늘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구원받은 사람
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는 아니다.
2. 둘째 하늘 -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창22:17;
시19:1 비교).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첫째 하늘을 가로질러 둘째 하늘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다. 비록 둘째 하늘이 광대하고 아름답다 해도 첫째 하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는 아니다.
3. 셋째 하늘 -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12:2; 왕상8:27, 30 비교).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제의 셋째 하늘이다. 수천 년의 노력 끝에 사람들은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갈 수
있었지만 아무리 우주 공학이 발달해도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사람을 데려다 줄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여행은 ‘뇌’에 의해 가능하지 않고 오직 ‘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하늘에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하늘은 셋째 하늘, 하늘의 하늘, 가장 높은 하늘 등으로 불리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도 여기에 거한다(마6: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늘에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
며 자신의 백성이 와서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엡4:10; 히8:1; 9:24-28).
한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죽는 순간 바로 이 셋째 하늘에 간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고후5:8; 참조 빌1:23). 여기서
‘몸을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가리키며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게 된다. 중간 대기소나 연옥 같은 장소로 간다는 것은 성경과는 동떨어진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셋째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도시가 있으며 신구약 성도들은 바로
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라”(히11:10; 참조 시46:4; 87:3; 요14:2-3). 그런데 이 도시, 즉 새 예루살렘

은 영원히 셋째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이 끝나면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온다(계 21:2). 바로 이 도시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이다.

3. 이때에 그 은밀한 일(비밀)이 그에게 드러남(19). secret은 신약의 신비(mystery, 22+5=27회)와 비슷한 말, 68회 단수, 10회 복수, 78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아는 일(신29:29)
창세기 41장 파라오의 꿈, 요셉에게 나타남

4. 하나님 찬양(20-23): 가장 먼저 한 일 하나님 찬양

5. 어떤 하나님인가?(21)

a.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역사의 하나님, 이제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통해 여러 왕국들의 변천 과정을 보여 주려 하신다. 핵심: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낮과 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구름과 햇빛, 건강과 질병, 유년기와 청년기, 장년기와 노년기에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그분의 통제하에 있다.

b.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21), 사사기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의 치리자

c.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약1:5)

6. 시험을 당하면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행12:1-5).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행12:5). 순서 내용: 기도 찬양, 빌4:4-7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심(24-45)

1.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 세상의 지혜자들이 찾을 수 없는 것들(26-27)

2. 28절은 요셉의 말과 같음(창41:16):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이다.

3. 느부갓네살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변천을 보여 주신다(28, 29절).

4. 28절의 마지막 날들(latter days, last days, last times)은 많이 나오는 말

last days(8회), latter days(11회), last times(1회)

신약의 용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됨(히1:1-2)

마지막 날들: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때(창49:1; 신31:29; 단2:28): 그리스도의 재림(호3:5; 미4:1; 율2:28-32),

교회의 마지막 때는 위험한 때(딤후3:1), 배도의 때(벧후3:3)

교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으로 끝이 난다(살전4:13-18).

5. 큰 형상(31-35절), 금, 은, 놋, 쇠와 진흙, 깎아낸 돌

형상은 세상 왕국의 변천,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들의 때라고 부르심(눅21:24)

BC 606부터 시작되어 환난기 끝까지 진행됨(계11:1-2).

그리고 재림으로 끝이 남(눅21:20-28), 20, 24, 27절 참조

이방인들의 때(times of the gentiles)

이방인들의 충만함(fulness of the gentiles) 롬11:25

6. 이방인 국가들

인류 역사상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방 국가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였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방인들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다.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같은 국가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덮쳐 그들을 정복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찰 때까지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 두셨다. 그 뒤에 그들을 풀어놓으시고 세상의 권능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도록 허락하셨다. 이 일은 주전 606년경에 일어났으며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었다.

'이방인들의 때'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하신 어떤 한정된 연대의 기간이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과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이 충만히 차는 것을 가리킨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눈먼 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를 받을 때가 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은 오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방인들의 때’가 완료되기 7년 전에 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될 것이다.

해석(36-45)

다섯 가지 세상 왕국(*)

1. 금 머리: 바빌론(BC 606-536), 주님의 손에 있는 금 잔(렘51:7)
2. 은 가슴과 두 팔: 메대 페르시아(BC 536-330)
3. 놋 배와 넓적다리: 그리스(BC 330-63(시리아), 30(이집트)), 알렉산더(BC323 사망)
4. 쇠 두 다리, 쇠와 진흙의 두 발(BC 63-30 이후): 로마제국
5. 단8:20-21을 보면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이름이 언급된다.
6. 세상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

결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20-22)

개인 국가, 그분의 섭리하에 있다. 숙명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모든 개인의 아유 의사를 존중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니엘서 강해 16: 느부갓네살 형상의 꿈 해석: 이방인들의 때

단2:36-49

지난 시간, 위기를 당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석을 드디어 다니엘에게 드러내심. 꿈(*)

이들의 하나님 찬양, 느부갓네살에게 보고함

중요한 단어, 하늘의 하나님(2:19, 37, 44, 28), 구약 22, 신약 2, 여기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

셋째 하늘 등 설명, 오늘 < >, 해석과 하늘의 왕국 설명

꿈의 해석(36-45)

이방인 왕국들의 변천 과정(*)

1. 금 머리(37-38): 바빌론(BC 606-536), 주님의 손에 있는 금 잔(렘51:7), 지금의 이라크(*)
2. 은 가슴과 두 팔(39): 메대 페르시아(BC 536-330), 지금의 이란(*)
3. 놋 배와 넓적다리(39): 그리스(BC 330-63(시리아), 30(이집트)), 알렉산더(BC323 사망), 나라가 넷으로 쪼개짐, 특별히 이집트(프톨레마이오스)와 시리아(셀레우코스), (*)
4. 쇠 두 다리, 쇠와 진흙의 두 발(40-43): 로마 제국(BC 63-30 이후), (*) 유럽(스페인, 영국), 아프리카, 소아시아
5. 세상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
(*), (*), (*), (*), 성경 바로 보기, 클라렌스 라킨(*)

이방인들의 때(times of the gentiles)

말 그대로 이방인들의 전성기, 특별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누르고 세상을 다스리는 때

BC 606년부터 7년 환난기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남(눅21:20-28), 20, 24, 27절 참조, AD 70년을 말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의 때’에 관해서는 다니엘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과 다니엘이 본 네 ‘환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의 때’와 관련이 있다.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제2년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단2:31-45). 그는 꿈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보았다. 이 형상은 세상 왕국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왕국들의 통일성과 역사적 계승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즉 역사를 통한 이방인들의 통치가 거대한 ‘금속들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선도(*)

형상에 사용된 금속의 질적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것은 세상 왕국들의 쇠퇴를 보여 준다. 형상의 무게 또한 줄어들고 있다. 형상은 머리 부분이 가장 무겁다.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금속은 연이어 일어난 네 개의 세상 왕국을 의미한다(단2:37-40). 이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네 왕국, 즉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왕국이 세상의 정부로 계승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왕국들의 개수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까지도 계승하는 순서대로 밝혀져 있다(단2:38-40; 8:20-21; 9:26).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들의 특성 속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형상의 구조상 쇠퇴는 그 정부들의 특성을 예언의 형태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정부들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절대 군주제로 시작하여, 형상의 발을 구성하고 있는 철과 진흙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중국에 가서는 독재적 민주정치(철권 통치) 정부 형태로 쇠퇴해 가고 있다(단2:41-43).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방인들의 통치가 몸의 모든 기관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으뜸 기관인 머리에서부터 머리가 명령한 곳으로 몸을 옮겨 주는 구실만 하는 발로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산에서 깎아 낸 돌’에 의해 발에 일격을 맞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 여기서 이 돌은 점진적으로 땅에 가득 차서 형상을 밀어내지 않고 일격에 그것을 부수고 만다. 돌이 형상을 친 것은 심판이지 결코 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기독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란 하나의 과정인 반면에 이 돌이 형상을 친 것은 갑작스러운 재난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상의 멸망의 때는 발가락이 형성된 이후의 일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상의 두 다리는 주후 364년에 가서야 나타났고(*)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완전히 분열된 것은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망 후인 395년경이다.

로마 제국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313년), 정치와 종교의 혼합

1차 니케아 공회: 325년 로마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소집되고 여러 곳에서 주교 318명이 참가했다.

여기서는 아리우스 주의 배격(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이다)

아타나시우스 정통 삼위일체 교리 정립,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수도 이전(330년)

콘스탄틴 대제 이후, 테오도시우스가 379년부터 395년까지 로마 황제로 세상을 다스림

그는 AD 380년 세례를 받고 니케아 신경을 신봉함(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으로 알려짐)

테오도시우스는 제국 내에서 신앙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했고 380년 2월 28일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교회 당국자들에게 아무런 자문도 구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니케아 신경을 신봉해야 한다고 규정한 칙령을 발표했다. 이것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이다.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설을 믿는 사람들만 보편적 기독교인(카톨릭)으로 인정되었다.

카톨릭이라는 호칭이 문서에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위키백과: 테오도시우스 1세 편 즉 카톨릭 교회(*), 공교회, 공의회 결정 특히 니케아 신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의 모임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사 그림(*)

제1차 니케아 공회(325년)로부터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에 이르는 기간을 종종 "일곱 공의회 기간"이라고 부른다. (*) 이 공의회들은 동로마제국 황제가 소집 명령을 내렸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대주교/대감독이 의장이었으며, 신약성경 언어인 코이네 그리스어(헬라이어)로 진행되고,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을 작성하였다.

공교회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콘스탄틴 포함 대다수 황제는 불신자

황제들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함

테오도시우스의 사망 직후 국가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니(*), 형상의 두 다리

서로마제국: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할된 395년부터 476년까지 서방 황제의 치하로 존속한 로마 제국의 연속체로 공식 국호는 이전과 같은 로마 제국(라틴어: Imperium Romanum)이다. 동시기에 함께 분할되어 1453년까지 존속했던 동로마 제국과 달리 서로마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야만족들의 침입과 내분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476년에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아우구스투스)가 친위대장 오도아케르(게르만족 군사령관)에게 강제퇴위당하며 멸망하였다.

수도는 밀라노(395-402), 라벤나(402-476년)

유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등장, 그리스도의 대리자,

동로마 제국: 1453년 멸망, 동서로마 분열 이후 로마 제국은 그냥 동로마 제국으로 보면 된다. 그리스, 터키, 시리아 등 모두 포함, 그러므로 그리스 터키 여행을 가면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유물을 볼 수 있다.

형상의 열 발가락

그런데 열 발가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 이 돌이 형상 위에 떨어지는 때는 이 왕들의 시대(단2:44) 곧 장차 있을 열 발가락이 대표하는 왕들의 시대로서 이것은 다니엘의 해석 속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단7:23-24).

여기에 나오는 돌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 네 금속으로 표현된 네 왕국은 문자 그대로 실질적인 왕국들이다. 그러므로 뒤따르게 되는 '돌 왕국' 또한 문자 그대로의 실질적인 왕국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돌 왕국'이 이 세상 왕국들을 파괴하고 대신하여 온 땅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돌 왕국'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며 형상이 상징하는 '이방인들의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끝나게 된다.

느부갓네살이 이 형상에 관한 꿈을 꾸지 약 48년이 지난 뒤에 다니엘은 네 짐승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단 7:1-8, 15-27). 이 짐승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짐승의 왕인 사자에서부터 철로 된 이와 뿔으로 된 발톱과 머리에 열 뿔을 가진 짐승, 즉 말로 묘사할 수 없는 기이한 괴물로 격하된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7-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또 하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다.

여기에는 이방인들의 마지막 왕 곧 적그리스도도 나온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네 개의 세상 왕국은 이미 이름이 밝혀진 대로 차례차례 서로를 계승해야 했지만 시간상으로 끊어지지 않으면서 연속적으로 서로를 계승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이방인들의 때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이방인들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주전 606년에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둘 왕국', 즉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에 끝이 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저자가 '둘 왕국'이라고 한 것은 다니엘서 2장 44-45절에서 형상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돌, 즉 '사람의 손으로 깎아 내지 않은 돌'을 언급하기 위한 것이다.

몇 가지 교훈

1.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 a. 하나님이 미래를 다 아신다. 섭리로 주관하신다(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 b. 심지어 이방인들의 왕들도 세우신다(2:37-38). 왕들도 멸하신다.
 - c. 궁극적으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 천년 왕국, 첫 아담, 마지막 아담
 - d. 그 뒤 새 하늘과 새 땅
2.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재정립하신다.
 - a. 후천년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미래 일들의 요약 선도(*)
3. 세상의 일들(인간의 업적)은 타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열역학 제2법칙). 모든 것이 악하고 추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동성애, 인간 복제, 천사와의 결합(43절, 킹제임스 성경의 아름다움),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결혼 (*)
4. 세상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혼합된다. 연합이 안 된다. melting pot(행17:26-27)
 - a. 흙에서 나온 인간은 허무함 자체이다(시39:5)
5.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마6:25-34).
6. 느부갓네살은 겸손해 질수밖에 없었다(2:37-38).
7.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셨다(롬11:33-36).

하나님의 종들이 영예를 얻음(46-49)

느부갓네살은 너무도 놀라서 그를 신으로 여기고 경배함(46)

1. 행10:25-26의 고넬료 베드로에게 경배함
2. 행14:8-18의 바울과 바나바(루스드라 지방 사람들),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나님 찬양(47)

영예를 줌(48-49)

다니엘서 강해 7: 성경의 총 주제는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의 설립이다!

다니엘서 2장: 왕국

지난 2시간, 다니엘서 2장 강해, 느부갓네살의 꿈, 형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 형상의 비밀을 드러내심. 그것은 이방인들의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

이방인들의 때: BC 606년부터 적그리스도까지, 그리고 돌이 나타나 온 세상 왕국들을 부수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영원히 존속한다.

성경 전체가 보여 주는 메시지: 셋째 하늘에서 루시퍼의 타락(사14, 겔28),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심.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보여 주시려고(엡3:10-11).

하나님의 인간 창조, 땅(에덴동산)에 왕국을 세우시려 함,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킴, 메시아 약속, 그 뒤 노아 시대, 하늘의 천사들까지 내려와서 인간 파괴, 대홍수, 그 뒤 민족들, 아브라함..이스라엘 국가, 이들의 타락, 바빌론 등장, 이방인들의 때...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재림하시자마자 곧바로 왕국 시작, 이것은 이사야서 이후 모든 대언서의 기본 구조, 스가랴서 14장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단순히 인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실현되는 왕국을 땅에 건설하는 것
이사야서 9장 6-7절, 11장, 에스겔서 40-48장, 스가랴 12-14장 등을 아무런 편견 없이 보라.
메시아가 해야 할 일 왕국의 건설

이 모든 것의 요약: 단2:44-45

문제

로마 제국 시대(2,000년 전에)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야 했는데 왜 안 세우셨을까?

그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는 왕국으로 결코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다(2:44-45).

그러면 그 왕국은 언제 세워지는가?(계20)

대다수 한국 교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구원만 가르친다.

큰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의 일부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그리고 이스라엘 대체신학 때문에

왕국의 필요성

성경은 무슨 책인가? 구원, 마귀 파멸, QT, 고난의 위로/격려

그러나 성경의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의 왕국

왕국: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399회(단수 342+복수 57회), 왕(king)은 총 2590(단수 2256+ 복수 334), 약 3,000회 개역성경 King은 거의 다 왕으로, 그런데 Kingdom은 왕국으로 안 하고 나라 혹은 천국으로 번역함. Kingdom은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함. 개역성경의 번역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인 왕국을 이해할 수 없다.

그 결과: 왕국: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전락함, 왕국 회관

왕국 이야기

1. 루시퍼의 타락(사14,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로 가겠다).

그가 사탄 마귀가 됨, 천사들의 3분의 1이 동조함(계12:4)

2. 사람의 창조, 땅 위에 가시적인 왕국 건설,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심(창1:26-28), "왕국을 세워라."

3. 사람은 타락으로 인해 왕국의 통치권을 상실하였고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되었다(눅4:5-6;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 요14:30).

4. 현시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의 대립

노아의 대홍수(BC 2348년경), 바벨탑 사건

5. BC 2000년경 아브라함을 부르심, 땅에서 가시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심.
6. BC 1491년경 이집트 탈출, 모세를 지도자로 하는 신정정치 국가
7. BC 1000년 경 왕정 시작, 다윗의 왕국(삼하7:16),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집과 네 왕국, 네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선다.
 - a. 이로써 아담, 아브라함, 다윗으로 메시아(왕)의 계보가 좁혀짐.
8. 그러나 북/남왕국은 타락하고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메시아 가문인 유다는 BC 606년경 바빌론 포로가 됨
9. 이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어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돌기 시작함
10. BC 4년경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왕의 출생을 알림(눅1:30-33).
 - a.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마2:2)
 - 눅2:30: 시므온, 주의 구원, 이스라엘의 영광
 - 눅2:38, 여대언자 안나, 그때에 그녀가 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 눅24:21: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11. 그로부터 삼십 년 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함(마3:1-2). , 단2:44의 하늘의 왕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12. 왕이신 예수님도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며 그와 동일한 것을 선포함(마4:17).
 - a.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 b. 대언자 다니엘:
 - c. 주기도문: 마6:9-10
13. 그 이후에 그분께서는 열 둘 제자를 보내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마10:5-8).
14. 왕국의 복음은 표적들과 이적들과 함께 선포됨(사35:5-6).
15. 그러나 왕은 자신의 백성에 의해 배척당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로써 왕국의 건설은 연기되었다(마23:37-39).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마27:37).
16.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게 되었다(롬11:11-12).
17. 마23에서 왕국의 연기를 이야기하시고는 곧바로 마24-25에서 재림 전의 상황을 말씀하심.

여기에는 교회가 없다. 이미 휴거됨

- a.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음(마 24:3).
- b. 여기의 너희는 다 유대인(24:4, 6, 9 등)
- c. 재림 전에 다시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진다(14).
- d. 대언자 다니엘의 70일(15, 단9:27; 살후2:3-4)
- e. 겨울이나 안식일 No!(20)
- f.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난(21)
- g. 환난기 끝에 천체의 변화(29)
- h.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옴(29-30)
- i. 25장으로 가서 1-13의 열 처녀 비유, 그때에 하늘의 왕국,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들러리 처녀들
- j. 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멸망 받을 자들 분리(34, 41, 46) (*)
미래 일들의 개요(*)



18. 예수님의 처형, 부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a. 행1:6-8

b. 교회 시대(은혜 시대)가 열림, 재림 때에야 나를 다시 본다.

19. 재림 전의 7년 환난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도 왕국의 복음(마24:13-14), 천국 복음 아니다.

144,000명

20. 은혜 시대는 7년 환난기 전에 끝나고 환난기 이후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21.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시작됨(마25:34)

22. 왕국의 백성: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육체를 입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존재들

다니엘서 강해 10: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다니엘서 2장: 왕국

지난 몇 시간, 다니엘서 2장 강해, 느부갓네살의 꿈, 형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 형상의 비밀을 드러내심. 그것은 이방인들의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

이방인들의 때: BC 606년부터 적그리스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 나타나 온 세상 왕국들을 부수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영원히 존속한다.

단2:44

성경의 핵심 메시지: 루시퍼의 타락 이후 우주 창조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 건설, 타락, 둘째 아담이 이를 이룸, 천년왕국 이런 계획 안에 인간의 구원, 마귀의 심판 등이 다 들어 있다.

지난 시간,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 연기, 초림에서 재림으로

오늘 < >,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책(*)

구약의 대언서들: 초림과 재림 동시에 대언함

메시아: 성경의 총 주제(창3:15) 메시아 별 (*)

메시아 예언의 두 줄기(*), 초림과 재림, 어린양으로 고난받는 메시아,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

열두 제자, 눅24 엠마오 마을 두 제자를 보라. 유대인들은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만 고대하고 있음(눅 24를 편견없이 읽어 보라).

예수님 부활 뒤에도 왕국 건설 이야기(행1)

그러나 성경은 두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메시아가 두 번 오심을 보여 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정혼,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한 뒤 다시 음(요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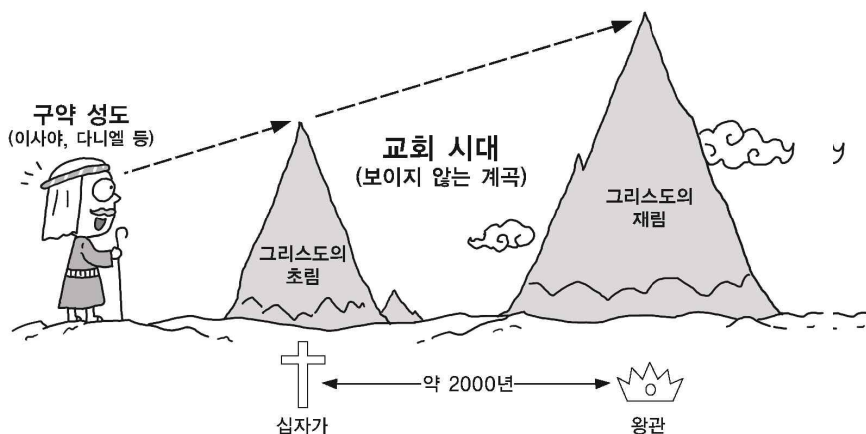
에스라 성경 사전, 지도 선도에 들어 있음

왜 이런 문제: 구약성도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였다.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구약 예언의 핵심

1. 구약성도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였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즉 교회는 이들에게 신비였다(엡3:5-6).

2. 구약의 대언자들이 한 일(벧전1:10-11): 고난(초림)과 영광(재림)(눅24:26)

유대인들에게 사53은 가려진 책

(& a. 사61:1-2(눅4:16-21)

b. 사11:1-5는 초림, 6-16은 재림

(& c. 사40:1-5는 재림, 그런데 40:3은 초림(마3:3 등), 엘리야와 침례자 요한(말4:4; 마 17:10-12)

d. 렘31:15는 초림, 16-40은 재림(27, 31 등)

e. 시68:18-20은 초림, 21-23은 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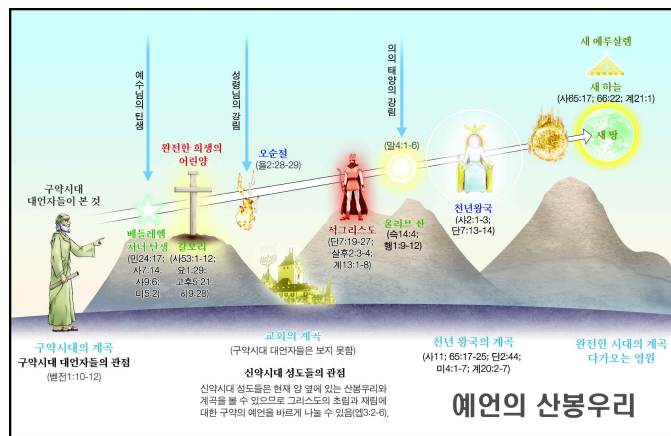
f. 시118:5-29는 초림(22-23등), 그런데 26은 초림과 재림 모두(마21:9; 23:39)

g. 단2:37-43 초림, 44 이후 재림

h. 단7:1-8은 네 짐승(세상의 네 왕국), 넷째 짐승 이후에 곧바로 9-14에는 주님의 재림

(& i. 단9:26-26은 초림, 26절 후반부터는 갑자기 재림

j. 심지어 천년 왕국 뒤의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로 보임(사65:17; 66:22; 벧후3:13), (*)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No!

구분하지 않으면 구약 이사야서 이후 대언서들 이해 불가

신약의 예언 부분 이해 불가

지금 강해하는 다니엘서 이해 불가

천년 왕국

1. 왜 천년 왕국인가? 계20:2, 3, 4, 5, 6, 7절 총 6번의 천년 천주교 장로교의 무천년주의 No!
2. 천년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을 속이던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1-3). 죄의 유혹이 없는 때, 아담의 에덴동산에도 뱀이 있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유토피아(전쟁도 범죄도 굶주림도 질병도 없는 세상).
3. 예수님이 왕으로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림(시2:7-9, 12).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슌14:9).
4.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된다(사2:2-4). 전쟁이 없다.
5.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사11:1, 6-9). 모든 동물 초식
6. 모든 사람이 주님께 대해 알게 된다(사11:9).
7.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약 1,000살까지 살게 됨)(사65:20-22)

8.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9. 누가 들어가는가? 양 민족, 마25는 마24와 함께 세상 끝의 일들을 보여 준다. 믿음을 가진 유대인, 이방인, 육체를 가진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 존재한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한다.

10. 왜 필요한가? 성경의 구조

하나님의 구원 방법: 모든 시대에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 시대마다 다르다.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 구약 시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 교회 등 알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창15:6),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 다르다. 사람의 청지기직이 다르다.

하나님의 청지기직 테스트, 사람의 실패, 다시 새로운 경륜 통치 시작

성경 바로 보기(*)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경영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하신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 믿음으로 은혜로 유대인, 이방인을 보라. 신약과 구약을 보라.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사람들을 테스트하신다:

사람들의 상상: 마귀가 없는 유토피아에 살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1000년이 찰 때 마귀가 잠시 풀려나니 대규모 폭동(계20:7-10)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마귀와 악한 자들 모두 불 호수에 넣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
하나님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 주심

미래 일들의 개요(*)

결론

1. 딤후2:15

성경 바로 보기(*),(*),(*),(*)

다니엘서 강해: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 단2:44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이 닫힌 책이 된다.

다니엘서 강해 14: 느부갓네살의 금 형상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광로 단3

지난 몇 시간, 다니엘서 2장 강해, 느부갓네살의 꿈, 형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 형상의 비밀을 드러내심. 그것은 이방인들의 때(*),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

이방인들의 때(눅21:24): BC 606년부터 적그리스도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돌이 나타나 온 세상 왕국들을 부수고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영원히 존속한다.

단2:44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보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했지만(2:46) 아직도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그의 47절 고백은 말로만 한 것이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 대단히 많다: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분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오히려 그를 교만의 자리로 이끌었다.

신약에도 바울의 경우 셋째 하늘 경험(고후12),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가 교만에 빠지지 못하게 하심

영적인 사람의 특징: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하무인 목사들, 그들을 추종하면 파멸에 이른다.

단3에서 느부갓네살은 우상숭배를 하였고 그 결과 4장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단련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불같은 시험(벧전1:6-7)

1절: 두라 평야의 금 형상, 60큐빗(27m, 9층 높이 *), 아마도 2장의 형상을 본 판 것일 수 있다.

3장의 형상은 사람의 업적을 말함, 60큐빗, 6큐빗, 계13:18의 짐승의 수 666

7은 완전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 6이다.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마음을 드러냈다. 사람의 일은 그의 마음을 보여 준다.

마음 조심(렐17:5-10)

2-3절: 자기 제국의 신하들을 모두 불러 형상 앞에 세움

4-7절: 음악 소리가 날 때에 모두 엎드려 형상에게 경배하게 함.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경배하며 삶을 연장하고 있다.

8-12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경배하지 않다가 고소를 당함.

형상 숭배 No!(출20:4-5)

13-15절: 느부갓네살의 회유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회유함(마4:9).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 무시(15)

16-18절: 세 사람의 거부(18절) 및 신앙 고백

성도의 믿음 고백(벧전3:15)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믿음 고백(행24:14-15)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믿음 고백(행26:6-8), 베스도의 말: 네가 미쳤다(24), 아그립바의 말: 네가 거의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28), 바울의 말(29)

19-23절: 용광로를 일곱 배나 뜨겁게 하고는 세 사람을 던져 넣음

개역 풀무 불, 풀무: 불을 피울 때에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 골풀무와 손풀무 두 가지가 있다. ≒야로, 풍구, 풍상

24-25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 사람의 아들 No! (*)

하나님의 아들(총 48회, 구약 1회, 신약 47회)

아들의 용례(요5:17-18), 하나님의 아들=하나님, 사람의 아들=사람(시8:4), 신성과 인성 표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행4:36)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마귀의 시험(마4:3)

마귀들의 인지(마8:29)

제자들의 인정(마14:33)

베드로의 인정(마16:16)

대제사장의 질문(마26:63-66)

백부장의 고백(마27:54), 내시의 고백(행8:37)

아들 하나님(God the Son)=삼위일체의 둘째 인격체의 호칭

26-27절: 그들을 끌어올림(히11:34)

그런데 시험에서 반드시 100% 구조되는 것은 아니다(히11:36-38). 신약시대의 많은 순교자들

28-29절: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아들=천사

천사는 원래 뜻이 '임무를 수행하는 자. 이 말은 보통의 사자에게 적용되었고(욥1:14; 삼상11:3; 눅9:52), 대언자(사42:19; 학1:13), 제사장(전5:6; 말2:7) 또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었고(말 3:1, 언약의 사자) 그분의 복음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감독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계2:1, 8, 12).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도 하신다(마1:20; 22:3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이나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남성 단수 대명사 he를 사용하며 이로써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38:7).

성경은 천사의 수가 매우 많음과(단7:10; 마26:53; 눅2:13; 히12:22-23) 그들의 힘이 매우 강력함을 보여 준다(시103:20; 벧후2:11; 계5:2; 18:21; 19:17).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 한편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여자들과 성적으로 결합하여 거인들을 출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땅에 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유6와 벧후2:4는 그들을 가리켜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나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에 묶여 어둠 밑에 예비된 자들'이라 부른다.

주의 천사(68회)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하나님 자신이다. 또 성육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이다(창 16:7-13; 22:11-18; 31:11-13; 32:24-30; 출3:2-6; 23:20; 삿2:1-23; 13:16-22; 행7:30-38 등 비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천사로, 즉 여호와로 구약과 신약 시대 초반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의 큰 계획을 수행하셨다(사63:9).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천사(갈4:14),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30절: 세 사람의 승진(벧전5:5-6)

사람의 승진은 주님에게서 온다(시75:6-7).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75:7)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결론

하나님이 단3장을 기록한 이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히11. 롬15:4를 기억하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서 강해 10

다니엘서 4장: 짐승이 된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단2장,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 계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회개하지 않음

단3장,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야에 형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 강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싸움

단4는 매우 특이한 장이다. 이방인들의 왕이 자기의 교만과 그것으로 인한 수치를 직접 기술해서 온 세상에 알려진 일, 자서전 같은 글

자기의 교만, 미친 것, 짐승 같은 행동, 회복 이후 하나님께 영광 등이 기술됨

아주 어렵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움(잠16:18), 총37절

1. 왕의 선포(1-3)

단3장의 용광로 사건 이후에 상당히 긴 시간(20-30년)이 흘렀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다(4절). 여러 나라 정벌, 공중 정원 건축,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 준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2-3절을 말함.

2. 왕의 또 다른 꿈(4-18)

4-7절: 이번에도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꿈의 해석을 말하지 못함

8-9절: 다니엘을 부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인정함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빌론의 벨 신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의 벨드사살로 바꿨다(8, 19절; 1:7 참조). 벨(마르둑)은 왕이 가장 좋아하는 신 중 하나였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이 부분에서 히브리어 이름과 바빌론식 새 이름을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가 수년에 걸쳐 다니엘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를 평범한 유대인으로 대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왕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며 그분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주었음을 인정했다.

10-12절: 단2의 형상과 달리 이번에 그는 큰 나무의 꿈을 꾸었다. (*)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첫 번째 꿈(단 2장)에서 왕은 거대한 금속 형상을 보았는데 이번 꿈에서는 많은 짐승과 새를 먹이고 보호하는 거대한 번성하는 나무를 보았다.

13-16절: 그런데 순찰자(watcher)가 내려와 모든 짐승을 떠나게 하고 나무를 베어 그루터기만 남김 그는 천사(한 순찰자)의 외침을 들음(14). 나무를 베어 가지와 잎을 잘라내고 열매를 흡으며 그루터기에 쇠와 놋으로 띠를 두르라는 명령. (*)

순찰자: 천사의 한 등급(고전11:10), 단4:13,23 단수 두 번, 17절 복수 1번 총 3번만 나옴. 골1:16의 왕좌, 권능, 정사, 통치 등

거룩한 자, 특별 목적을 띠고 있다. 시103:20-21

그런 다음 천사는 누군가가 "일곱 때"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어떤 사람의 마음(심장)이 짐승의 심장처럼 됨.

seven times 일곱 때=7년, 단7:25, 12:7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3년 반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큰 형상의 꿈)을 꾸고 후 괴로워했지만(2:3), 이 두 번째 꿈을 꾸 후에는 두려움에 떨고 근심하였다(4:5). 그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꿈의 해석을 물었지만 그들은 당황했고,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다.

17절: 이 꿈을 주신 목적

18절: 다니엘에게 해석 요구,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다시 고백함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고 인식함

경건한 사람, 침례자 요한, 헤롯이 그를 존경함(막6:20)

3. 꿈의 해석(19-26)

19절: 이번에도 예의를 갖추

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니엘은 깜짝 놀라고 괴로워했고, 왕의 얼굴에서 당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니엘은 성공한 군주 앞에 놓인 위협을 보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그는 그 꿈이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며 재치 있게 왕이 나쁜 소식을 듣지 않도록 대비했다(삼하18:32 참조). 우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빌론의 일을 함께 처리하면서 왕에게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노력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20-21절: 나무 설명

22절: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단2장의 금 머리(단2:37-38)

몇 년 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은 이 금 머리입니다”(단2:38)라고 말했고, 이제는 “왕이여,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4:22)라고 말했다.

성경에서 나무는 왕, 민족, 제국과 같은 정치적 권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된다(겔17: 31; 호14:1; 슥11:1-2; 눅23:31).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도움과 그분의 칙령에 따라 많은 민족과 민족을 보호하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는 큰 왕국, 강한 왕국, “땅끝까지”(단4:22) 통치하는 왕국을 다스렸다.

그러나 왕은 이러한 업적에 대한 공로를 자만하고 있었고 마음이 교만해져 큰 위협에 처해 있었다. 왕은 첫 번째 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왕국을 다스리시며 지상의 왕좌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바빌론 왕국은 언젠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대신할 다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용광로 사건에서 신실한 유대인 세 사람이 살아남는 기적을 목격했고, 누구도 그들의 위대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라고 선언했다(3:29).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에서 가혹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는 단2:37-38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 자기의 왕국이 멸망되고 다른 왕국이 일어남을 이해하지 못하였다(39절 이하).

단3장의 용광로 사건을 통해 그는 28-29를 말하고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이제 직접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고 심판을 받는다.

23절: 순찰자의 선포

24-26절: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고 미친 사람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왕좌를 회복함

나무를 베고 다듬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치욕과 왕좌에서 쫓겨남을 상징하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언젠가 다시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의미한다. 그루터기에 띠를 두른 것은 그가 하나님의 표적을 받았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7년 동안 왕은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자연의 힘을 몸으로 느끼며 살게 될 것이다.(*).

일곱 때는 7년으로 보임, 5:21을 보면 그가 들나귀들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

마귀가 아무리 흉악하게 날뛰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 주신다.

즉 그분은 창조자시요, 우리는 창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짐승의 처지로 내려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위대한 제국들을 묘사하실 때 짐승들을 사용하셨고(단7장),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계11:7, 13:1f, 14:9,11 등).

시49:20, 6-9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시32:9).

사람의 의무: 자기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사1:2-4)

4. 회개하라(27)

27절: 해석에서 끝을 내지 않고 순종과 회개를 촉구하였다.

예언을 아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설교자들과 달리 다니엘은 진리와 책임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에는 ‘그러므로’가 있었다 (27절).

여러 목사들의 잘못: 예언 해석 등 잘한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은 별로 없다.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현재 자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책임을 부과한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퇴보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약1:22-27).

예를 들어 재림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해도 베드로후서 3:11-18에 나오는 베드로의 훈계까지 가르쳐야 그리고 지켜야 인정으로 재림을 아는 것이다.

그 땅의 고위 관리였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니엘은 또한 모세의 율법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난한 자, 이방인, 억압받는 자의 보호자이자 수호자로 말씀하신 적이 많음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방대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부는 교만한 왕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또한 예언 해석 등은 회개로 사람을 이끌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람이다. 눅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9-14)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계시에 반응하면 더 큰 것들을 계시하신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말한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정도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왕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5. 왕의 수치(28-33)

28절: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이루어짐

29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1년의 시간을 주셨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음

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120년을 참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음

예수님 처형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을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음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벧후3:9).

30-33절: 그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

교만이 가장 큰 문제이다(잠6:16-17; 11:2).

루시퍼의 죄는 교만(사14:12-15), 아담의 죄 교만, 딤편전3:6

웃시야 왕의 몰락 원인도 교만(대하26:16-21)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참으심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멸절시킬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에게서 이를 일이 있다.

결국 그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처럼 되었고(단4:16)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잔인한 본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셨다. 다니엘과 다른 신하들이 왕의 7년 동안 왕국의 정사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왕이 왕좌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잘 정돈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자체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다니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단5:21에 따르면 왕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 들나귀와 함께 살았고 그의 정신과 마음, 심지어 몸까지 7년 동안 짐승처럼 변했다.

하나님은 왕과 왕국 모두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백성과 대언자 다니엘을 위해 성취해야

할 것이 있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왕이 자기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 제국에 전하여 그분의 이름이 민족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6. 왕의 회복(34-37)

34-35절: 그의 회복과 하나님 찬양

일인칭 서술은 34절에서 다시 시작되는데(나 느부갓네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년 말 느부갓네살이 고통에서 구출되어 정신과 정상적인 인간의 삶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왕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믿음과 복종을 암시한다. 어떤 분들은 느부갓네살이 이때에 영적 회심을 경험했다고 믿으며, 이 구절에 나오는 그의 간증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단4:34-35). 이 얼마나 간결한 성경 신학의 요약이며, 예배에 대한 흥미진진한 표현인가!

롬11:33-36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이다. 느부갓네살의 왕국은 제한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바빌론은 언젠가 무너지고 다른 제국에 자리를 내주겠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왕국을 파괴하거나 그분의 목적을 무너뜨릴 수 없다.

7년 전만 해도 왕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을 가졌다.

땅의 모든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단4:35 a). nothing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단4:35 b),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 왕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주요 교훈이었다(17, 25, 32절).

하나님의 주권, 오해하면 안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모두 가르치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일 때 모순이나 갈등은 없다.

이런 통치 주권은 구원 주권이 아니다(즉 칼빈의 구원 예정 주권이 아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백성에게 기쁨으로 증언했다(단4:1-3).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공식 기록의 서문에서 왕은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영원한 왕국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을 담대히 선포했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파라오의 반응과 얼마나 다른가! 파라오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했다.

36절: 왕국의 회복

37절: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다. 거짓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마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회심' 경험의 결과는 무엇이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왕의 이성을 회복시키고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을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예와 영광을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왕좌를 돌려 주셨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위대해졌다"(단4:36)고 성경은 증언한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대신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단4:37)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에 근거한 경고의 말로 공식 성명을 마무리했다.

"교만하게 걷는 자는 그분께서 낮추실 수 있다"(37절).

오늘날 세상은 교만이 사악하고 위험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침과 과장을 일삼으며 당대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과 행적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분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사13:11).

"오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마23:11-12)

다니엘서 강해 11: 벨사살의 교만과 하나님의 바빌론 심판

단5:1-31

다니엘서는 참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단1장: 히브리 소년들의 믿음

단2장: 느부갓네살의 꿈, 이방인들의 때,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 계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회개하지 않음

단3장,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야에 형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 강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싸움

단4장, 이방인들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교만과 그것으로 인한 수치(미침, 짐승)를 직접 기술해서 온 세상에 알림. 그는 아주 어렵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움(잠16:18)

성경을 강해하면서 나 자신이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오늘 < >, 총31절, 역사적 사실을 통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위어스비 목사의 다니엘서 강해 참조

다니엘서 5장은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몰라도 '벽에 기록된 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 장은 바빌론에 대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준다.

바빌론(Babylon)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세워진 고대의 유명한 도시. (*)

바빌론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로 여겨짐, 해자(성 주위에 둘러 판 못)

성벽 둘레 100킬로미터, 높이와 너비는 90, 22미터, 늦 성벽, 20년 비축 양식 등

비록 바빌론이 정금이지만 끝이 난다. 하나님의 뜻이 선다.

오늘 바빌론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것 시33:10-11,

1. 벨사살의 하나님 무시(1-4)

느부갓네살은 BC 562년경 사망, 그 뒤로 그의 아들 에빌프로닥(2년, 아들), 네리글리짜르(4년, 사위), 나보니두스(BC 556-539, 느부갓네살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름),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써 바빌론 도시를 공동으로 다스림. 벨사살은 모계를 통해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여겨짐 나보니두스가 약 10년 동안 바빌론을 비움 BC 553-543

이 기간에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바빌론 도시의 공동 왕

때는 BC 539년경, 메대/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론 도시를 포위함

1절: 벨사살은 메대/페르시아 군대가 도시를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잔치

그는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염두에 두지 않음

바빌론이 메대/페르시아에 의해 대체된다(단7장)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함

때를 잘 파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대한민국의 성도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2-4절: 그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였다.

느부갓네살의 칙령과 하나님 찬양(단3:29; 4:34-37) 무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 재판관들의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프랑스 올림픽, 영국 폭동, 미국, 한국

2. 주님의 심판 선고(5-9)

5절: 손이 나타나고 손가락이 벽에 글을 씌, 혼비백산 (*)

하나님의 손가락은 권능 표시(출8:19(티끌을 이로); 31:18(십계명 돌 판); 시8:3(우주 공간); 눅 11:20(마12:28), 손가락은 하나님의 영)

6, 9절: 왕이 두려워 함

7-8절: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부름.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이방 땅으로 쫓겨났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위엄을 드러내신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특히 청년들이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3. 왕비의 권고(10-12)

10절: 아마도 왕비는 왕의 어머니, 다니엘만 있으면 OK라고 생각함,
BC 606년, 그는 10-15세 정도에 잡혀갔으므로 이때 그는 80세 정도의 노인
그런데 벨사살은 다니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놀랄 일이다.
사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다(22절).
다만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우연으로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잊고 지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약1:5; 시90:10, 12).

4. 심판 경고(13-29)

13-17절: 왕의 보상 제안, 다니엘은 왕의 제안에 관심이 없다.
18-24절: 다니엘은 왕을 존중하였으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권력은 하늘에서 온다(롬13:1). 그러므로 존경을 표시해야 한다(유8-9).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권력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바르게 말을 하였다.
왕은 다니엘을 몰랐지만 다니엘은 왕의 과거를 잘 앎.
느부갓네살이 뼈저리게 느끼며 취득한 지식을 벨사살은 무시함(21).
그리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멸시함(23절)
벨사살은 행17:27-29의 진리를 알지 못함
우리는 어떤가?

25-29절: 주님의 경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28절, 베레스의 복수)
글자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해석은 못 하였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날들을 세셨고 그것은 이미 끝이 났다.
끝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서 타인에게 주어졌다(28).
느부갓네살의 경우 경고 후에 시간이 주어졌지만 벨사살의 경우는 곧바로 끝이 났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해야 한다(고후6:1-2).

5. 심판 성취(30-31)

30-31절: 바빌론 도시의 멸망, BC 539년,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 BC 606, 68년 되는 해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친척(삼촌)이다. 이 두 사람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림.

(*) 메데(Media, 야벳의 아들 마대 창10:2)는 페르시아(엘람, 셈의 아들 창10:22)의 북쪽,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정복됨.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 메대와 페르시아는 거의
한 나라(단5:28; 6:8, 12, 15 등)

다리오는 바빌론을 정복하고 바빌론의 왕으로 세워졌다(단9:1). 그는 2-3년 정도 통치하였고 결국

(*) 메데/페르시아는 페르시아로 합병되어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며 BC 536년에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선포하였다(70년 포로 생활, 통합 왕국의 고레스 1년).

지도에서 보듯이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짐.(*).

메대/페르시아 연합군은 유프라테스 강을 막아 강의 수위를 낮추고 강바닥을 걸어서 성을 공략함.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은 이미 이사야(사13-14; 21; 47)와 예레미야(50-51)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다.

이사야서 13장과 14장은 구체적으로 바빌론의 붕괴와 멸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빌론은 영원히 세계의 수도로 남지 못했으며 느부갓네살의 손자 즉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고레스가
이곳을 점령하였다. 페르시아 사람들과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의 통치 밑에서 바빌론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었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거의 황폐한 사막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바빌론은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유적이 발견된 것도 약 3세기 전의 일이다. 이사야서 21장 강해를 보기 바란다. 1-10절은 위대한 예언의 말씀, 바빌론 도시가 단5장의 벨사살 왕의 통치 때에 다리오의 메대 사람들에 의해 함락되는 것을 묘사함(BC 700년경의 예언) 바빌론은 유대인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으나 너무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함(렘 50:33-34).

바빌론은 사13:19-20 말씀대로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신비 바빌론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계17:3, 5, 7; 18:2, 10). (*)

바빌론은 늘 예루살렘과 대조된다.

바빌론은 니므롯이 세운 반역의 도시(창10:8-10), 그 이후로 바빌론 문화의 확장, 바빌론 국가 건설, 최종적으로 음녀 바빌론으로 온 세상 장악, 하나님의 최후 심판

(*), (*), (*), (*), (*)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은 악한 국가를 멸하시는 것도 자신의 계획에 따라 하신다.

가나안 족속의 멸절(창15:16)을 늦추심.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고 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심판을 부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

우리는 성경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역사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한다.

그 전에 구원받고 부활/휴거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재림을 믿으면 삶이 변해야 한다(벧후3:9-18).

<http://faithkorea.com/%EB%8B%A4%EB%8B%88%EC%97%98%EC%84%9C-5/>

다니엘서 강해 12: 사자 굴속의 다니엘과 하나님의 구출

단6:1-28

다니엘서는 참으로 흥미진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충절과 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출해 주시는가'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다니엘 BC 606년경 1차 바빌론 포로 생활, 10-15세 정도의 아이들도 끌려감

단1장: 히브리 소년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믿음의 싸움

단2장: 느부갓네살의 꿈, 이방인들의 때, 하나님의 인류 통치 계획 계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회개하지 않음

단3장,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야에 형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 강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믿음의 싸움

단4장, 이방인들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교만과 그것으로 인한 수치(미침, 짐승)를 직접 기술해서 온 세상에 알림. 그는 아주 어렵게 하나님의 교훈을 배움(잠16:18)

단5장, 벨사살 왕의 잔치,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을 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바르 그 밤에 바빌론 도시의 치리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함. BC 539년경, 정복자는 메대 사람 다리오.

오늘 < >, 총28절,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개입, 은혜를 의지하고 살자.

다니엘서 6장: 다니엘과 사자들

여기의 다리오는 주전 522년경부터 486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한 다리오 1세가 아니다(학개와 스가라에 나오는 다리오). 후자의 시대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둘째 성전을 지었다.

여기의 다리오는 아마도 고레스 왕이 자신이 통치할 때까지 바빌론의 통치자로 임명했던 사람(5:31, 9:1)의 이름(또는 칭호)일 가능성이 크다. 고레스 왕은 539년부터 530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으며 그 뒤를 이어 캄비세스(530~522)가 통치하였다.

정복 후 종종 그렇듯이 새로운 통치자는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고 자신의 리더십 목표에 부합하도록 정복한 왕국의 정부를 재조직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다리오가 바빌론을 재조직하기 시작하면서 80대에 접어든 베테랑 행정가 다니엘과 그의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오늘날 헌신적인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곳이라면 가정, 교회, 기업, 정부 등 어디에서든 이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위어스비 목사의 다니엘서 강해 참조

1. 정직 대 부패(단6:1-4)

1-2절: 다리오는 자신의 관리들(120여 명)이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재산을 강탈하고 있다고 의심했을 것이고 그의 의심은 옳았다. 다리오가 왕국의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든 일꾼을 감독하고, 모든 계좌를 감사하고, 모든 임무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왕은 업무가 잘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의존해야 했고, 이는 곧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리오는 세상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바빌론 정부 안에서 자기가 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전5:8~9 참조).

3절: 현명한 지도자는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법, 다리오는 곧 다니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가 정직과 지혜로 명성을 얻었으며, "뛰어난 영"(단 6:3)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다니엘은 반 은퇴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왕은 그를 왕국의 주요 관리자 3인 중 한 명으로 임명했다. 이 세 사람은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120명)의 업무를 관리하고 왕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다. 다니엘은 매우 뛰어난 일꾼이었기 때문에 다리오는 그를 왕국 전체의 최고 관리자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4절: 다른 지도자들은 이 계획에 대해 들었을 때 짜증을 냈고 그의 업무에서 잘못된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시기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엘을 반대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재정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그들은 다니엘이 책임자가 되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관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자신들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득의 몫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유대인 망명자가 자신들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고 업무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 분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파라오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성경에 나오는 심각한 죄악인 반유대주의의 또 다른 사례였다 (이집트의 파라오, 나치 히틀러, 환난기의 용, 계12장).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다(창 12:1-3).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었다.

전 세계적인 반셈족주의 현상

정직한 직원이 승진하고 그의 적들은 심판을 받는 경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예외적인 경우로 모두 이교도 통치자들에 의해 승진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분명히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 신실함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면 그렇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게으름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직장을 지키기 위해 신실함과 선한 간증을 희생하는 것보다는 신실함과 선한 간증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 믿음(faith)의 사람은 신실해야한다(faithful). 믿음직스럽다.

늘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 태양의 뜨고 지는 것, 고전4:1-2

우리가 주님을 우선시한다면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마6:33). 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윗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진이나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일꾼의 보상은 언젠가 주님의 손에서 나올 것이다.

요즘 미국, 유럽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동성애 프로테스트하다가 잡혀가기도 한다.

2. 믿음과 계략(단 6:5-11)

5절: 다니엘처럼 신앙과 관련된 문제 외에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흠잡을 데 없는 인격을 소유한 것은 분명 칭찬할 만한 일이다. 간사한 관원들은 다니엘이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유혹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신실한 종교적 관습을 불법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수는 있었다. 다니엘은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매일 세 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10절), 그의 적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면 다니엘은 사자 굴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씩 기도했을 것이다(왕상8:28-30; 38-39; 46-51)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시55:17)

6절: 다리오 왕은 여러 신하들이 자신의 방에 모여 자신과 면담할 때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다니엘은 관리들 중 최고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지도자들은 그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을 것이다. 이때에 그들은 왕실의 모든 행정관들이 다리오에게 제시한 계획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으로 다니엘도 그 계획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그들은 왕국의 모든 관리들, 즉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7절)를 포함시켜 왕에게 왕의 지도자들이 자신과 그의 직책을 확대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

7-9절: 관리들은 자기들이 구상한 음모와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영리했다. 그들은 다리오가 왕국을 통일하고 가능한 한 빨리 패배한 바빌론 사람들을 충성스러운 페르시아 사람들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위해 위대한 왕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여 한 달 내내 그를 최고 지도자이자 유일한 신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료들은 이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최후의 형벌을 요청했다. 물론 신하들의 아침은 왕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왕은 재빨리 동의하고 법안을 작성해 서명했다. 일단 서명된 법은 변경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었다(8, 12, 15절, 전1:19).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하고 높이 평가했다는 모든 증거가 있지만, 왕은 서두르다가 친구를 위협에 빠뜨렸다. 아침은 소통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리오는 교만하여 악한 자들의 아침에 굴복했다. 시5:9.

10-11절: 음모를 꾸민 신하들은 왕의 칙령을 선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다니엘은 아마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시55:17) 기도했을 것이고, 적들은 가장 빠른 기회를 이용해 그를 체포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다니엘이 빨리 체포될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 빨리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거룩한 도시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말한 기도 약속을 주장하고 있었다(왕상8:28-30, 38-39, 46-51). 유배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이나 제사장 제도를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왕좌에 계셨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실 것이다.

다리오의 통치 제1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대인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위대한 약속을 기도로 바꾸었다(단9:1). 다니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유대인들에 대한 음모처럼, 중보자 다니엘에 대한 음모는 사실상 유다 민족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다.

다니엘이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타협하고 신실한 기도 생활을 유지하지 않을 핑계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 달이 끝날 때까지 창문을 닫고 하루에 세 번씩 조용히 기도하거나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고 비겁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이 경우 그는 그의 원수들처럼 위장하며 계락을 꾸몄을 것이고 주님은 그에게 복 주시는 것을 보류하셨을 것이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오직 주님만 두려워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행5:29). 몇몇 지도자들은 그를 염탐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왕에게 보고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만 보시는 부분, 즉 매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3. 하나님의 능력 대 인간의 권위(단6:12-23)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며 간구했는데(10-11절), 이는 바울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지시한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빌4:6-7). 다니엘이 그런 평화와 용기를 가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니엘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는 80년 넘게 주님과 함께 걸어왔고 자기의 하나님이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님은 다니엘이 연단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그가 진실하게 서도록 도와주지 않았나? 주님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고 세 친구를 용광로에서 구해 주셨지 않는가?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단9:2)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렘32:27)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아, 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뚝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17절)라고 대답했다. 기도로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자는 주님의 힘 안에 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12-13절, 다니엘은 고발당했다. 다니엘을 염탐하던 사람들은 다리오가 가장 아끼는 신하가 율법에 불순종하고 왕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서둘러 다리오에게 알렸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재빨리 협력하지만 선을 행하기 위해 함께 모이기는 어렵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르다”(롬3:15). 그들은 자신들보다 높은 직책을 맡은 다니엘을 존중하지 않고 “유다의 포로 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자”(단 6:13)라고 경멸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배된 백성과 함께 하시고 24시간 안에 그분의 종을 옹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옳은 일과 주님이 명하신 일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잔인한 박해를 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딤후3:12).

14절, 왕은 괴로워했다.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이자 왕국을 통치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그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다리오의 행동 방식 때문에도 괴로워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믿고 성급하게 법에 서명한 것이다. 다리오가 시간을 들여 다니엘과 상의했다면 그 음모를 알아차렸겠지만, 주님은 다니엘의 정적들이 드러나고 심판받을 수 있도록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엡1:11) 행하시며 그분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신다.

15-16절, 왕은 다니엘을 처형에서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실패했다. 이 상황은 에스더서에 묘사된 상황과 비슷하다. 일단 법에 서명하고 나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다. 다니오는 '신'이었고 백성들이 그에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신'이 자신의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게다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무효화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다니오는 왕국에 관한 다른 모든 문제를 무시하고 다니엘을 풀어 주려고 했지만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물론 다니엘의 정적들은 왕이 좋은 싫든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니엘의 곁에 있었다. 결국 다니오는 다니엘을 불러서 사자 굴에 넣어야 했다.

사자 굴은 사자들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벽을 당겨 올릴 수 있는 큰 구멍이었다. 사육사는 빈 쪽에 먹이를 놓고 벽을 들어 올리면 사자들이 건너와 먹이를 먹었다. 사육사는 재빨리 벽을 내리고 구멍이의 안전한 쪽을 청소했다. 사자들은 사형 집행이 있을 때를 대비해 식욕을 돋우기 위해 자주 먹이를 주지 않거나 많은 양을 먹이지 않았다.

16-17절, 다니엘이 구멍이로 내려가고 벽이 들리기 전에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를 구해 달라고 기도했다(단 6:16, 20절과 3:17 참조). 그런 다음 왕은 구멍이를 덮고 바위를 봉인하여 모든 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했다.

왕은 에스더 이야기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경험한 밤과 다르지 않은 나쁜 밤을 보냈다(에6:1). 동양의 왕들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온갖 오락을 제공받았지만 다니오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심지어 금식까지 했다! 그는 주님께서 옛 유대인 대언자를 사자 굴에서 구해 주실지 궁금해했다.

19-21절, 다니오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사자 굴로 달려갔다. 구멍이에 도착해 인봉을 떼고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기 전, 그는 고뇌에 찬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충성스러운 종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고백했다. 다니엘의 믿음은 그에게 평화와 확신을 가져다주었지만 왕의 믿음은 약하고 흔들리고 있었다.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라는 다니엘의 음성을 들은 다니오는 자신의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가 구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히11:3:3).

22절,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단6:22, 2:27-28, 4:25, 5:21-23 참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으로 사자의 입을 닫으실 수도 있었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 천사는 굶주린 짐승들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도 함께했다(3:24-25). 다니엘서는 이 세상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민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 천사의 사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 준다(10:10-13, 20-21). 다니엘을 구원하는 천사를 떠올리면 시34:7과 91:11 같은 약속이 떠오르고, 예수님을 위한 천사의 사역을 기억하게 된다(막1:13, 눅 22:43).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과 함께 하였다

수태고지(눅1:26-35)

탄생(눅2:7-14)

시험(마4:1-11)

겻세마네(눅22:39-44)

부활(마28:1-7)

승천(행1:9-11)

천사는 섬기는 영(히1:14): 우리의 삶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천사가 언제 우리와 함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히13:2), 그들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알 수 있다(히1:14).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구출되었을 때 세 명의 유대인들이 용광로 속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처럼(단 3:27) 다니엘 역시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다.

주님은 다니엘의 믿음(6:23)과 그가 왕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22절) 그를 구해 주셨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왕의 법이 하늘에서 거부되었고 다니엘이 그 법에 불순종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왕 앞에서 무죄하였고 해를 끼치지 않았다(22절). 매우 중요함
모락을 꾸민 신하들은 그러한 법을 제안함으로써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출20:1-6),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았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자신의 이름에 큰 영광을
돌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불멸한다.
(*) 맥아더 목사 이야기: 7월 14일, 두 번째 심장 수술, 8월 15일, “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에 대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나도 곧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더 시가를
주실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충실한 주의 종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시련과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의 업적을
설명하지만, 36절부터 40절까지는 역시 위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핍박과 순교를 당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다. 이 이름 없는 '다른 사람들'은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만큼이나 믿음을 가졌지만
특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되었지만(사도행전
12장), 두 사람 모두 사도이자 주님의 충실한 종이었다.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 있으므로 현명하지 않다(행14:8-20, 28:1-6).

4.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수치(단6:24-28)

다니엘이 사자 굴에 갇힌 밤에 왕이 직접 그를 풀어 주면서 영광과 구원의 아침으로 끝났고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밤을 지내고 무사히 나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도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상상해 보라.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시
고 무사히 나오게 하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

24절, 반역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단6:24). 동방의 군주들은 신하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5:19), 누구도 감히 그들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과 그의 가족만 사자 굴에 던졌다(6:11~13). “의로운 자는 고난에서 구출을 받으며
그를 대신해서 사악한 자가 오느니라.”(잠11:8). 이 법의 유일한 예외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발생했다(벧전 3:18).

다음과 같은 보상의 법칙이 있다. “누구든지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안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이 그에게 되돌아오리라.”(잠26:27). 예를 들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고, 그 결과 유월절에 이집트의 모든 만이들이 죽었다. 그는 갓 태어난 유대인 아기들을
나일강에 익사시키라고 명령했고 그 결과 그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다(출 14-15장).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다가 결국 모르드개를 위해 만든 교수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에7:9-10,
9:25). 죄인은 현세에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며(히 9:27), 그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공모자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멸망한 것은 우리에게서 잔인해 보이지만 그것은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법이었고 공모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 자녀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했지만(신24:16, 겔 18:20), 동방의 독재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반역자의
남은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의 처형을 명령한 통치자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
다. 잠재적 암살자를 감시하는 것보다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훨씬 쉬웠고, 게다가 이 사례는 잠재적
말썽꾼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겠지만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12:1-3).

25-27절, 그러나 다리오는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것 이상의 일을 했다. 그는 또한 왕국 전체에 칙령을
내려 신하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히브리 포로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했다(25~27절).

이 장에서 다리오의 첫 번째 법령은 자신이 신이라고 선언했지만(7-9절), 이 두 번째 법령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리오는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공개적으로 증언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과 비슷하게 했다(2:47, 3:28-29, 4:1-3, 34-37).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사자들로부터 구해내심으로써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로 굴욕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의 거짓 신들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유다 민족, 특히 왕과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는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고, 주님께서는 우상 숭배 민족을 사용하여 그들을 물리치셨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지 못하셨지만 이제 이방의 통치자들로부터는 찬양을 받으셨고 그 법령은 이방 세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이 법령은 이방인들에게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라는 증거였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법령이기도 했다. 유대인 포로들은 우상에 둘러싸여 있었고 정복자들의 신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다. 이방인들에게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증언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인 일인가!

26절, 다리오 칙령에 표현된 신학은 모세, 다윗, 바울이 기록한 그 어떤 것만큼이나 진실하다.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26절, 신 5:26, 수 3:10, 시 42:2, 렘 10:10, 시 145:13, 계 11:15 참조). 그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위험과 죽음에서 구출하시며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단 6:27, 3:28-29, 4:3, 신 6:22, 느 9:10, 시 74:9, 105:26-36, 135:9, 렘 32:20-21 참조).

하나의 기도(삼상2:6-10)도 이와 비슷하다.

28절,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번영했다. 메대의 다리오는 고대 역사에서 '그림자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바빌론을 얼마나 오래 통치했는지, 고레스가 개인적으로 언제 왕좌를 물려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리오가 바빌론을 점령했을 때 그의 나이가 62세였으므로(5:31), 몇 년 안에 그가 죽고 고레스가 왕좌에 올랐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다니엘은 다리오와 고레스의 존경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주님을 위한 증인이었다.

다니엘은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용하는 칙령을 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았으며(대하36:22-23, 에스라 1:1-4),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수도 있다(단9:1-2, 렘 25:11-12). 고레스가 유다 민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자기 민족을 위한 그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세 사람이 용광로에서 구출된 이야기(단 3장)와 함께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구출되었다는 소식은 포로 생활 중인 유대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구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나님이 세 사람을 용광로에서 건져내고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낼 수 있었다면, 바빌론 포로들을 바빌론에서 건져내어 고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결론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날 주님을 위해 의롭게 서 있다는 이유로 적들의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가 용광로에 직면하든(벧전 1:6-8, 4:12-19), 포효하는 사자를 만나든(5:8-10),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으며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7절).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은 살면서 불 같은 시험을 당한다(벧전1:6-8; 4:12-19).

또 울부짖는 사자의 위협을 받는다(벧전5:8-10).

지금과 같이 위험한 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 사람(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을 기억하자.

다니엘서 강해 13: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의 행적

단7:1-28

다니엘서 주전 606-536경,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유대인 포로들의 역사

이방인들의 때(2장), 하나님의 주권(4장)

초림과 재림의 시기, 재림 상황, 계시록, 스가랴서와 함께 재림에 대해 가장 잘 보여 준다.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잘 보여 준다.

5장, BC 539년경, 벨사살의 멸망, 메대 사람 다리오의 등장

6장, 다리오 시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 사자 굴속에 던져지는 고난, 하나님의 승리(6:26-27)

오늘부터 7, 8장 공부(벨사살의 제1년, 제3년), 이 장들은 5, 6장 전에 있던 일이다. 10-14년 전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본 환상들, 7-10장에는 다니엘 자신의 환상

7장의 환상은 2장의 환상과 같은 맥락으로 주어지고 특히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잘 보여 준다.

오늘 < > 세상 왕국의 변천,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의 행적

세상 왕국의 변천(1-7)

1절: 벨사살의 통치 1년에 주어짐(BC 553).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 아버지는 나보니두스

느부갓네살은 BC 562년경 사망, 그 뒤로 그의 아들 에빌프로닥(2년, 아들), 네리글리싸르(4년,

사위), 나보니두스(BC 556-539, 느부갓네살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름)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바빌론 도시를 공동으로 다스림.

벨사살은 모계를 통해 느부갓네살의 손자로 여겨짐

나보니두스가 약 10년 동안 바빌론을 비움 BC 553-543

이 기간에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함께 바빌론 도시의 공동 왕

이때 다니엘은 약65세

2-3절: 대해(지중해)에서 네 바람,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두렵고 무서운 짐승(*), (*)

네 짐승은 네 왕 곧 네 왕국(17절)

단2의 형상: (*), (*) 인간의 역사 혹은 세상 왕국들이 사람 눈에는 멋있고 인상적일 수 있지만(2장)

하나님의 눈에는 서로 잡아먹는 짐승처럼 보임(7장)

또한 넷째 왕국과 관련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의 호칭은 짐승임(23-24, 계13:1, 18)

단2장의 형상과, 7장의 짐승들은 세상 왕국들의 변천을 다른 시각에서 보여 준다. (*)

4절: 첫째 짐승. 사자와 독수리, 형상의 정금(2:37-38), 바빌론(*)

성경은 바빌론을 사자와 독수리로 표현함(렘4:7, 13; 합1:6-8).

짐승이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고 짐승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지는 일은 단4:16, 28-34의 느부갓네

살, 7년간 짐승 같은 생활

5절: 둘째 짐승. 곰(*), 형상의 은(2:39), 메대/페르시아(바빌론 정복 5장), 8장 3절의 두 뿔 가진

숫양

세 개의 갈빗대: 메대 메르시아가 정복한 리디아, 이집트, 바빌론 왕국으로 보는 견해

6절: 셋째 짐승. 표범과 네 날개(*), 2장 형상의 뿔(2:39), 그리스

8장에는 네 뿔이 있는 것으로 표현됨(8:8, 21-22).

알렉산더의 왕국은 넷으로 분할됨: 가장 강력한 국가 두 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프톨레미(프톨레마

이오스 왕조,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시리아는 셀레쿠스(셀레우코스)

그리스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8장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할 것임

7절: 넷째 짐승. 두렵고 무섭고 매우 강한 짐승(*), 형상에서 쇠로 된 로마 제국(2:40)

형상의 열 발가락(2:42)은 여기서 열 뿔로 나타남

적그리스도의 왕국(8, 19-27)

8절: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의 정체, 단2에는 계시되지 않은 것

9절과 2:44를 비교하라.

15-18절을 읽고

19-27절: 넷째 짐승과 작은 뿔 설명

이 왕국의 적그리스도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함(25)

이것은 계13-19에 기록된 7년 환난기의 적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멸절됨(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 왕국, 단2:34-35, 44-45).

열 뿔 (*), (7:7-8; 20, 24, 계13:1; 17:3, 7, 12, 16)

열 왕국은 유럽 연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 제국의 연장이요, 바빌론 문화 및 종교의 본산이다.

작은 뿔(*), (7:8, 11, 24-26): 그 왕국의 치리자

적그리스도 =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살후2:3-4), 계13:1-10

그는 세 왕(왕국)을 정복하고 파위를 차지함

사람의 눈 같은 눈(8): 지식과 지혜와 계략이 뛰어난

큰일들을 말하는 입(8, 7:11, 25; 계13:5-6), 살후2:4

그는 세상의 정치와 종교를 장악할 인물

바빌론 음녀는 종교를 통합해서 짐승에게 바침(계17:3-5)

그러나 끝에 음녀가 살해됨(계17:16).

음녀와 짐승은 다르다. (*), (*), (*)

2022년 7월 28일-8월 8일, 72개 팀, commonwealth game Birmingham

높이가 10미터, 짐승 위의 여자(*)

그의 통치 기간은 7년, 그중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7:25)

그의 기간 3년 반(계12:14,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계11:3; 12:6), 42달(계11:2; 13:5)

단9:24-27의 마지막 한 이레, 한중간에 그가 언약을 파기함. 3년 반의 대환난기

성도들에 대한 전쟁: 여기의 성도들(단7:18, 21, 22 2회, 25, 27)은 환난기 성도들이다.

특히 유대인 성도들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 없다. 미래 일들의 개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교회의 계곡이 드러나지 않음. (*),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보임

환난기에 이 땅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다.

특히 앞뒤 문맥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성도들이다. 22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메시아의 왕국 백성

마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한다(7:21, 25; 계12:13-17).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도들이 악한 무리들을 이긴다(18, 22, 27).

그리고 왕국을 취하고 소유한다(7:18, 22, 27). 이것이 메시아의 천년왕국이다.

<https://www.returnofelias.org/post/daniel-chapter-7-the-little-horn>

다니엘서 강해 14: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성취
그리스도의 왕국(7:9-14, 27-28)

다니엘서 강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이란 갈등, 전 세계적인 반셈족주의, 미국 대학들의 방 이스라엘 데모

2장: 세상 왕국의 변천(이방인들의 때)이 형상의 금속들을 통해 나타남(*)

7장: 세상 왕국의 변천이 짐승들을 통해 나타남: 사자, 곰, 표범, 무섭고 두려운 짐승(*)
(*), (*)

적그리스도(1-8절, 15-26절)

다니엘서, 스가라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세상 종말 마지막 7년 환난기

특히 교회의 휴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적그리스도, 후반부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25)

9절: 이것은 세상 왕국들의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의 환상(단2:44)

1,000년 왕국 이후의 크고 흰 왕좌 심판을 생각하면 된다.

드디어 옛적부터 계신 분(7:9, 13, 22)께서 나타남(영원무궁토록 계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면 됨. 이분은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심(9),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비슷하다(9, 계1: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9절), 그룹의 바퀴들(겔1:1-6, 13, 15-18)

10절: 불 같은 시내, 수많은 존재들이 그분을 섬김,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히12:22)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짐, 큰 흰 왕좌 심판(계20:12)

11절: 8절의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왕국이 무너지고 짐승이 불 호수에 던져짐(계19:20)

12절: 나머지 왕국들은 다음 왕국에 의해 정복되지만 잠시 동안(한 시기와 때) 명맥을 유지함

13-14, 27절: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후에 세워지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마3:2; 4:17; 마5의 산상 수훈의 왕국(5회), 6:10, 23:39의 왕국) 등

사람의 아들이 다스리는 영원무궁한 왕국: 다윗 왕국(삼하7:13, 16, 사9:6-7, 눅1:32-33)
시2:8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왕국, 계11:15

천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회와 이스라엘

미래 일들의 개요(*)

계시록의 개요(*)

천천년주의(Premillennialism)(*):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있다.” 성경적인 개념, 누가 읽어도 이것 외의 다른 해석은 불가능하다. 교단 신학 등에 의해 세뇌되기 전에는

후천년주의(Postmillennialism)(*): 교회 시대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 인간의 노력, 부흥, 유포아, 재림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 교회가 왕국이다. 어거스틴, 교황의 천주교, 천주교에서 나온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1.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세상은 Christendom(기독교계 *):

카톨릭(행위 구원, 마리아 숭배, 연옥, 제사장 등 비성경적인 교리들, 행위 구원 혹은 믿음 + 행위 구원)

프로테스탄트, 침례교(침례, 세례, 칼빈주의, 알미니안 주의. 다양하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엡2:8-10).

2. Christianity: 프로테스탄트, 침례교

프로테스탄트와 침례교(Bible believer)의 가장 큰 차이

핵심: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천주교, 프로테스탄트(루터, 칼빈, 에드워즈, 웨슬리 등)

신약 시대의 교회가 구약이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은 교회가 차지한다(복을 받는다. 평안하다. 보호를 받는다 등). 이스라엘 대체 신학

그런 약속들 가운데 물리적인 것들, 가나안 땅의 영원한 소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짐 등은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이사야서 9, 11, 눅1:31-33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1,000년 왕국이 실제로 세워진다는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함 실제 왕국은 없고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이 곧 왕국이다. 지금 교회(천주교)가 천년왕국 시대 이 이론은 보통 무천년설(주의)이라고 말한다. 창시자는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천주교,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은 무천년설, 실제 이스라엘 부인

그러나 침례교회의 다수의 바비블 빌리버들: 아니다. 문자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이 결국 올리브 산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좌를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신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개의 신학 사조가 프로테스탄트, 침례교를 지배하고 있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로교 감리교 중심, 당연히 무천년설, 이스라엘 대체 신학, 칼빈주의, 언약 신학 미국: 당연히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 다수, 이렇게 믿는 신학을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 가장 유명하다는 미국의 신학교들, 다 이런 입장 교수, 델러스, 밥존스, 남침례, 무디, 바이블라, 리버티 펜사콜라 등

한국이나 미국 모두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극렬하게 다룬다.

한국,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펜사콜라, '무천년주의 칼빈주의를 학교로 들여오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이 게임은 이미 끝난 게임이다. 왜, 1948년 5월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즉 구약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계시록 11장에 있는 환난기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 이후 약 1600년 동안 이어진 무천년주의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문자 그대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한다.

이들의 주장: 휴거가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

이 가운데 간혹 휴거가 있다고 믿는 자들도 있다(역사적 천천년주의자들).

다만 7년 환난기를 목숨을 내걸고 통과해야 한다는 환난 통과설을 주장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마24:13).

두 해석 방법

1. 과거적 해석 방법: 계시록에 기록된 것들은 계시록이 기록된 AD 96년 전에 다 일어난 것들이다.

카톨릭, 대다수 장로교, 그래서 기록 연대와 저자를 달리 보려 한다.

저자도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요한, 기록 연대도 AD 70년 이전의 네로의 박해 시대

그래서 계시록 6-19장의 모든 심판은 이미 다 끝났다. 네로가 적그리스도이다.

재림은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이쯤 되면 계시록을 수백 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읽으려고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개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이러니 계시록을 가르쳐주겠다고 신천지 같은 이단이 등장한다.

2. 미래적 해석 방법: 계시록 4장 이후에 기록된 것들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한 해석 방법이다, 11장의 환난기 성전, 13장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17-18장의 바빌론 몰락,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 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 왕국

오늘은 특별히 천년 왕국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왜? 단7장이 천년 왕국의 설립에 대해 말하므로 14, 18, 22, 26-27절을 보라.

이것은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다(단2:44).

다니엘서 강해 8번을 참고하라.

1. 왜 천년 왕국인가? 계20:2, 3, 4, 5, 6, 7절 총 6번의 천년 천주교 장로교의 무천년주의 No!
2. 천년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사람을 속이던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다(1-3).
이때는 죄의 유혹이 없는 때, 아담의 에덴동산에도 뱀이 있었다.
그런데 천년 왕국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유토피아(전쟁도 범죄도 굶주림도 질병도 없는 세상).
3. 예수님이 왕으로서 철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림(시2:7-9, 12).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슥14:9).
4.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된다(사2:2-4). 전쟁이 없다.
5.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사11:1, 6-9). 초식
6. 모든 사람이 주님께 대해 알게 된다(사11:9).
7.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약 1,000살까지 살게 됨)(사65:20-22)
8.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9. 누가 들어가는가? 양 민족, 마25는 마24와 함께 세상 끝의 일들을 보여 준다. 믿음을 가진 유대인, 이방인, 육체를 가진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 존재한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한다.
10. 왜 필요한가? 성경의 대칭 구조

과거의 영원, 창조, 에덴동산 유토피아, 바벨탑...그리스도

...바빌론, 천년왕국 유토피아, 미래의 영원

하나님의 구원 방법: 모든 시대에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다양한 경영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하신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 믿음으로 은혜로 유대인, 이방인을 보라. 신약과 구약을 보라.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맨 마지막에 지금의 이 땅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람들을 테스트 하신다:

사람들의 상상: 마귀가 없는 유토피아에 살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결국 1000년이 찰 때 마귀가 잠시 풀려나니 대규모 폭동(계20:7-10)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압하시고 마귀와 악한 자들 모두 불 호수에 넣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심

하나님의 천사들, 악한 천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 주심

성경 바로 보기(*), (*), (*), (*), (*)

단7의 결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들을 멸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단2:44, 눅1:32-33).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 성취, 이 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영원이 이어진다(계21:1).

미래 일들의 개요를 꼭 명심하자.

다니엘의 반응

세상 왕국의 변천, 그리스도의 왕국, 포로생활 중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소식

그러나 그는 이 놀라운 계시를 보고 오히려 몸이 아프고 일도 못하게 되었다(28).

당시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안색이 변할 정도의 충격

그리고 비밀로 하고 말하지 않았다. 바울의 고후12장과 같다(4절).

천국/지옥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다.

다니엘서 강해 15: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 마지막 때의 일

7장은 벨사살 왕의 제 1년에 받은 계시(7:1), 8장은 제3년에 받은 계시(8:1), BC 551, 다니엘 67세
7장은 세상 왕국들의 변천, 8장은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흥망성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구약성경은 히브리말로 대부분 기록되었는데 단2:4-7:28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이방인 왕국들).

구약 중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 에스라 4-6장 등

아람은 셈의 아들 중 하나: 아르박삿과 아람 등(창10:22)

아람어: 시리아, 아시리아의 언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함

특히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사용함

종교(경전) 언어: 히브리어, 생활언어: 아람어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히브리 민족 즉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계시

히브리 민족(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요4:22)과 종말 계시가 주어짐:

계시록도 유대교 색채가 강하다.

벨사살 당시 바빌론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음

이 상태에서 8장은 곧 일어날 메대/페르시아와 그리스 왕국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 줌
특히 그리스 왕국에서 일어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보여 줌.

오늘 < >

단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숫양과 숫염소를 통해 미래를 보여주고 계신다. 이 두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단8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20절: 성경은 숫양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다. 두 뿔이 달린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이다.

21-22절: 그리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것을 친히 해석해 주셨다.

다니엘서 2장에서 주님께서는 형상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 형상의 금 머리는 바빌론이었다. 하지만 2장에
서는 형상의 은 가슴이 어떤 왕국인지 밝혀주지 않았고 8장에서 이것이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늦 넓적다리의 정체도 2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8장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라고 정체를
밝혀준다. 그래서 우리는 2장의 형상의 각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바빌론과 메대-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7장의 짐승들도 순서대로 바빌론과 메대-페르시아와 그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장의 시점에서는 바빌론이 거의 지나갔기에 둘째 왕국인 메대와 페르시아부터 언급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모두 성취된 역사의 기록이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1-2절: 그는 엘람 지방의 수산 궁에 있었음. 수산 혹은 수사는 바빌론 제국 당시에는 미미한 도시(*),
바빌론에서 남동쪽으로 300킬로미터 떨어진 후, 페르시아의 수도가 됨(느1:1; 에1:2).

울래 강(8:2, 16)은 수산을 통과해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합쳐진 강과 만나는 물길 혹은 도시의
운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 (*)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국

3-4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두 뿔 달린 숫양(*), 나중에 난 뿔이 더 김.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긴 뿔은 페르시아)

후에 페르시아로 통합됨

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함, 리비아, 이집트, 소아시아, 인도 등을 정복함(*).

20절: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

고레스: 대언자 이사야는 이미 150여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기록함(사44:28), 그를 목자요, 기름

부는 자로 부름(사44:28; 45:1), 하나님의 일을 집행할 자(사45:3-4), 바빌론의 유대인 포로들 귀환 명령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빌론을 정복한 뒤 바빌론의 왕으로 세워짐(BC 539, 단5:31; 9:1).

2-3년 후에 고레스가 메대/페르시아/바빌론 등을 통합하여 전 제국의 왕이 됨(BC 536)

원래 고레스는 페르시아 전 제국의 왕이 되기 24년 전인 BC 560년경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 됨

그 뒤 메대 정복, 바빌론 정복(다리오에 의해), 그리고 BC 536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됨.

스1:1의 '고레스의 제일년'은 그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해를 뜻함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역을 모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메대 페르시아는 7장에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는 꿈으로 표현이 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죽였다(7:5). 8장에서는 이 둘째 왕국을 숫양으로 묘사한다. 숫양의 뿔이 두 개지만 하나의 짐승에 속한 것처럼 메대와 페르시아는 두 왕국이 하나의 제국을 이뤘다.

4절: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왕국을 서쪽과 북쪽으로 확장했으며 이후에 그의 아들은 이집트를 향한 남쪽으로 도 확장했다. (*) 200년 동안 페르시아는 제국을 확장했으며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메대 페르시아의 군대는 동쪽으로는 힘을 쓰지 못했다. 서쪽으로는 바빌론과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와 소아시아까지, 북쪽으로는 카스피 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와 리비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성경은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고 말한다.

2장에 기록된 형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은 7장에서 둘째 짐승인 곰으로 묘사되었으며 8장에서는 숫양으로 묘사되었다. 동일한 왕국이 서로 다른 상징으로 묘사된 이유는 관점의 변화 때문이다. 2장에서 은 가슴으로 묘사된 이유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7장에서 곰 같은 짐승으로 묘사된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8장에서 숫양으로 묘사된 이유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숫양은 곰처럼 두렵거나 호전적인 동물이 아니다. 숫양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근한 짐승이다.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숫양으로 보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들을 친근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는 바빌론에서 70년간의 포로생활을 한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비용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용까지 주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올랐으며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다. 에스더가 그 좋은 예이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살았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았던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곰 같은 짐승인 페르시아가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을 삼켜버리는 끔찍한 짐승 같게 하셨으나 유대인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해주는 숫양 같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평화롭게 지냈으며 심지어 결혼까지 했다. 이것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과 결혼하는 것을 두고 어느 유대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이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7장에서는 페르시아를 곰같이 생긴 끔찍한 짐승으로 묘사하셨지만 8장에서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인 숫양으로 묘사하신 것이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5-7절: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21-22)

큰 뿔을 가진 채 분노하는 숫염소: (*) 너무 빨리 다니므로 발이 땅에 닿지 않음, 숫양을 죽임(6-7)
몸을 땅에 대지 아니 했다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왕국들을 점령했음을 의미한다. 7장에서는 이것(표범)을 두고 날짐승의 날개 네 개가 달려 있다고 했다. 알렉산더는 인도에까지 세력을 확장했으며 페르시아와 시리아와 페니키아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했다. 그는 지중해의 그리스로부터 인도의 갠지스강까지 통치했다. 그는 12년 만에 이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 (*)

8절: 알렉산더의 죽음과 왕국의 분열

그런데 그가 강성하다가 갑자기 죽고(BC 323년) 네 뿔이 올라옴(단7:4-7; 11:4). (*)

그는 술에 취해 32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왕국은 네 장군에 의해 네 조각이 나게 된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셋째 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큰 뿔이 네 개의 뿔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약 230년 전에 다니엘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숫염소의 네 뿔은 7장에서 셋째 짐승의 머리가 네 개였던 것과 일치한다(7:6). 이들은 알렉산더를 이어 그리스를 통치한 장군들이다. 제국은 시리아와 이집트와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로 분할되었다.

1.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2. 시리아는 셀레우코스, 3.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는 리시마코스, 4.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드로스

분열 제국들끼리의 전쟁, '디아도코이'(계승자, 마케도니아 왕국의 장군들) 전쟁(4차례 발생함)

나무 위키: 헬레니즘 제국, 디아도코이

다니엘서에서는 네 왕국 중 오직 두 왕국인 시리아와 이집트만 언급된다. 왜냐하면 이 두 왕국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하며, 이집트는 남쪽에 위치하는데 이 두 왕국은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 두 왕국을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부른다(5-6절 등). 따라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북쪽의 왕국을 러시아나 중국이라고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꿈과 표범은 사람들이 피하는 무서운 짐승이지만 숫양과 숫염소는 사람들이 기르는 친근한 짐승이다.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다른 왕국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친근했기에 성경은 이러한 상징으로 예언했던 것이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전 331년경 알렉산더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에 왔을 때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밤에 특이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한다. 꿈에서 그는 유대인 대제사장과 친밀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는 그때까지 대제사장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날 밤에 유대인 대제사장 얏두아도 자신이 정복자와 만나야 한다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할 때 대제사장이 의복을 갖춰 입고 나왔다. 알렉산더는 대제사장을 보자 꿈에서 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때 대제사장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었고 알렉산더는 그것을 좋게 여겨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고 한다.

요세푸스의 기록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은 모두 성경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어느 종교의 어느 경전에도 이렇게 정확히 예언이 기록되고 성취된 적이 없다.

알렉산더(BC 356-323, 32세)의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의 업적: 1. 그는 동방 세력이 유럽 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함.

2. 그리스 특히 코이네 그리스어가 정착되게 함. 온 세상이 그리스어를 공통어로 함.

3. 그리스말이 공통어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신약성경이 기록됨

4. 이 후에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닦음으로써 신약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런 환상이 알렉산더의 왕국 정복 약 23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됨(BC 551년경): 그러자 다니엘서를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남

그림들

<https://www.theharvestatearthsend.com/The-Prophecies-of-Daniel-Part-7.html>

다니엘서 강해 16: 적그리스도의 모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마카비 전쟁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 마지막 때의 일

7장은 벨사살 왕의 제 1년에 받은 계시(7:1), 8장은 제3년에 받은 계시(8:1), BC 551, 다니엘 67세
7장은 세상 왕국들의 변천, 8장은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흥망성쇠,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등장

지난 시간: 1-8절, 고레스의 메대 페르시아(8:3-4, 20),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5-8; 21)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3-4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두 뿔 달린 숫양(*)

5절: 숫염소(*),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숫양을 누르고 이김(*)

숫양과 숫염소의 의미: 유대인들에게는 친근한 짐승들, 페르시아와 그리스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다.

유다의 귀환, 종교적 자유

지난 시간 끝부분,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 BC 323년, 32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그의 왕국은 네 조각으로
나뉘

8절의 네 뿔은 알렉산더를 이어 그리스를 통치한 장군들이다. 제국은 시리아와 이집트와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로 분할되었다.

1.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2. 시리아는 셀레우코스, 3. 트라키아와 소아시아는
리시마코스, 4.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드로스(*)

분열 제국들끼리의 전쟁, '디아도코이'(계승자, 마케도니아 왕국의 장군들) 전쟁(4차례 발생함)

나무 위키: 헬레니즘 제국, 디아도코이

다니엘서에서는 네 왕국 중 오직 두 왕국인 시리아와 이집트만 언급된다. 왜냐하면 이 두 왕국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

시리아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하며, 이집트는 남쪽에 위치하는데 이 두 왕국은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하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 두 왕국을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부른다(5-6절 등). 따라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 북쪽의 왕국을 러시아나 중국이라고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오늘 < >, 북쪽의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자가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성전 모독, 마카비 등장, 마카비 전쟁 등

개요: 그리스 제국의 분열(이집트와 시리아)

시리아의 작은 뿔 하나가 세력을 확장함(9-14), (*), 유대인들 극도로 핍박함, 성소를 더럽게 함.

멸망의 가중한 것, 2,300일 동안 성소가 황폐하게 됨(가까운 미래)

23-25절: 적그리스도(먼 미래)

1. 성경 예언의 2중적 구조 이해

성경의 많은 예언은 2중적인 성격이 있다.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한 것

1. 마24장의 올리브 산 강해, 성전 파괴 예언(1-2), 어느 때에 (3), 구체적인 일(눅21:20): 예루살렘
황폐, 이것은 AD70년에 이루어짐. 로마의 네로가 적그리스도, 과거주의적 해석, 계시록도 다 성취되었
다. 우리의 대답: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대환난기에도 일어난다(계11장을 보라).

예언의 2중 성취를 놓치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

2. 지난 10년 베리칩 문제,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이므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유튜브 동영상에 베리칩 미혹 기사가 매우 많다.

데이비드 차. <마지막 신호 The Final Sign>, 이현숙 저. <마지막 기회>, 장효섭 저. <베리칩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 이정철 저. <베리칩은 짐승의 표다>, 김용국 저.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CODE>, 장화진 저. <신세계질서의 비밀>, 조엘 레비. <비밀과 음모의 세계사>

<베리칩은 과연 666 짐승의 표인가?> -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서(안), 보고서의 핵심은 “아니다.”이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 a.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라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이다. b. 표를 받는다는 것은 상징이다.
- c. 결국 계13장의 내용은 과거 로마 제국과 로마의 종교의 행태를 나타내는 내용이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올까? 성경 예언의 2중 성취를 놓치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의 성취는 최종 성취가 아니다. AD70년으로 한정해서 보면 궁극적인 성취를 못 본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의 대언서는 특히 2중 예언 구조로 되어 있다(바빌론 회복, 재림 회복), 안식교도 항상 짐승은 로마라고 말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천주교 교황이라고 한다. 따라서 다니엘서 8장을 보면서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 a. 먼저 9-14절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BC 175-164까지 셀레우코스 왕국의 왕)에 의해 이루어짐, 15-22절은 천사 가브리엘(16절)을 통한 환상 계시 설명
- b. 23-26은 환난기에 이루어짐

II. 가까운 미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단11장 전체)

알렉산더 사망 이후 유대 지방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음(*)

BC 200,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프톨레미 왕과 싸워서 이기면서 유대는 시리아의 지배를 받음,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 허락함

그런데 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면서 노든 것이 완전히 달라짐

역사상 가장 악랄한 왕 중의 하나, 에피파네스는 ‘빛을 발하는 자’를 뜻함(루시퍼)

그는 주전215년경에 출생함,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는 안디옥(BC 240-63,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자신이 신들의 현현이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제우스라고 주장함.

그는 BC 170년경 이집트 프톨레미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함. 이때 이집트 본토로 진격해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한 모든 지방을 공략함, 이때 예루살렘과 성전을 훼손함

BC 168년에 다시 이집트를 두 번째 침공함. 그러나 로마의 개입으로 참패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등장 전까지 프톨레미와 셀레우코스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임

BC 170년경의 팔레스타인: 매일 전쟁,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헬레니즘 문화 강요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도피함(*). 이단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성됨

A. 제사장들의 부패: 대제사장이 유대인 권력의 실세, 매관매직

1.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 그가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 그의 동생 야손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2.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군자금을 마련하려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BC 174년경).
 - a. 그는 적극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장려할 유대인 지도자를 갖게 된 것에 기뻐했다.
 - b. 그는 야손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에 그리스 도시(폴리스)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 c. 야손은 체육관을 만들어 젊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곳에서 경기를 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의 구별 의식이 없어짐).
3. 3년 후인 BC 171년에 제사장 가문에 속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메넬라오스가 더 많은 뇌물을 바쳐 대제사장이 되었고 야손은 도망하였다. 메넬라오스는 안티오쿠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성전 보고서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렸다.
4. 오니아스 3세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메넬라오스는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5. BC 168년경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침공하며(2차 침공) 바쁘게 지내는 사이 그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야손은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메넬라오스에게서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하지만 안티오쿠스는 죽지 않았다.

6. 안티오쿠스는 야손이 그런 반역 행위를 했고 자신의 헬레니즘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메넬라오스를 다시 임명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임

B. 마카비(마카베오) 반란: 주전168년경, 셀레오쿠스 왕조의 강압적인 그리스 문화 강요 헬레니즘을 찬성하는 유대인들을 돕고 반대하는 자들을 핍박함

1.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의 반감
2.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유대교의 관습이 금지되는 사태가 연거푸 발생했다.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 주전 168년 에피파네스는 자기의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약탈할 것을 명령함, 예루살렘 성전 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성전을 봉헌함
4. 또 167년경 리시아스 행정관의 지휘 하에 반 유대적 포고령 선포,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더럽혔고 근 3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함, a.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침, b. 돼지를 잡아 바침, c. 구약 성경을 말살함
6. 주전 167년 모딘 마을에 파견된 관리와 제우스에게 희생물을 드린 배교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함(마타티아스(맛다디아) 제사장 가문이 이 일을 주동함)
 - a. 마타티아스의 다섯 아들: 존(Jone), 엘리에저(Eleazor), 시몬(Simon), 요나단(Jonathan), 유다(Jude)
 - b. 이들은 '망치'를 뜻하는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 불렸다.
 - c.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 혁명운동 시작 + 보수적인 하시딤 합류
 - d.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4년에 죽고 유다 마카비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진입시켜 탈환함
7.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여 기원전 164년 12월(기슬루월, 종교력으로 9월) 25일에 성전이 새롭게 봉헌되고 일주일(8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다. 이로써 율법에 합당하게 예배가 다시 드려졌다.
8. 이때부터 유대교는 매년 성전 봉헌(히브리어: 하누카 뜻 봉헌하다, (*) 요10:22, 개역성경의 수전절) 축제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며 빛이 암흑과 어둠을 쫓아내는 표징으로 등불을 점화하였다. 에스터의 부림절과 비슷한 차원에서 생겨남

C. 성경 설명

1.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기쁨의 땅(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옴(9절).
2. 그의 뒤에는 유대인들을 박멸하려는 마귀가 있다.
3. 에피파네스(그 뒤의 마귀)의 세력이 커지면서 하늘의 군대에까지 닿음(큰 세력을 뜻함). 사14장과 연관됨(10절). 에피파네스 자체가 제우스를 가리키며 적그리스도의 예표
4. 단순히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5. 심지어 그가 군대의 통치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함: 적그리스도의 모형(11절)
6. 성소가 훼파되고 희생물이 제거됨. 7. 헌물 드리는 것을 반대하며 형통함(12절)
8. 2,300일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13-14절). 2,300일(6년 4개월 20일, 360일 환산)은 BC 164년 12월 25일부터 계산하면 BC 170년 8월 5일
사실 그 당시 안티오쿠스는 이집트를 치러 가면서(1차 침공)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살해하다가 결국 성전을 황폐하게 함.
9. 너무나 정확하므로 다니엘서를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남

다니엘서 강해 17 적그리스도의 예표 안티오쿠스와 유대인들을 향한 대환난
단9:1-23

지난 시간 단8장, 그리스 제국, 네 뿔, 그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기쁨의 땅의 유대인들을 괴롭힘 그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BC 170년경에 이집트를 치러 가면서 성전 훼손 모독

주전 168년에 그는 자기의 장군에게 예루살렘을 약탈할 것을 명령함

167년경 리시아스 행정관의 지휘 하에 반 유대적 포고령 선포, 매일 드리는 성전 희생 제사를 금하고 제단에 돼지 피를 드림으로써 이 성전을 더럽혔고 근 3년 동안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함

주전 167년 마카비 전쟁

주전 164년 12월(기슬루월, 종교력으로 9월) 25일에 성전이 회복되어 새롭게 봉헌되고 8일간의 하누카 축제

성소가 훼파되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됨(12).

2,300일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13-14절).

2,300일(6년 4개월 20일, 360일 환산)은 BC 164년 12월 25일부터 계산하면 BC 170년 8월 5일

14절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가 아니라 땅의 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이다.

15-16절: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단8:16; 9:21; 눅1:19, 26), 사람의 모양, 남자의 모양

천사는 성경에서 언제나 젊은 남자로 나타난다.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등 없다(계21:17).

17절: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사례가 또 있다(계22:8-9). 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경배를 받음 그 환상은 끝이 오는 때에 대한 것, 세상 끝이 오는 때를 말한다.

미래 일들의 개요(*): 교회 시대, 휴거, 7년 환난기

환난기의 끝 즉 메시아가 임하기 바로 전 시대를 말한다(단12:1-2).

이때에 미가엘이 등장한다(12:1).

18절: 다니엘이 지쳐서 잠이 듦(27절: 10:9)

격노의 마지막 끝, 적그리스도의 격노, 그 끝은 정해진 때에 닥친다(9:24 이후의 70이레).

20-22절: 이미 설명했음

여기까지는 가까운 미래, 이 환상 계시는 BC 551년경, BC 164년경에 하누카, 약 387년 이후 그런데 성경 예언의 이중 성격, 먼 미래에 최종 성취가 이루어진다.

즉 안티오쿠스 사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

III. 먼 미래: 적그리스도

23절: 시간을 뛰어넘어 드디어 최후의 격노의 인물이 등장함,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그는 신비를 아는 자: 계약에 능한 자

24절: 그의 권세는 마귀가 준 것이다(계13).

그가 하는 일

거룩한 백성 즉 유대인들을 멸함, 후반부 3년 반 대환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미가엘 천사장의 등장(단12:1)

25절: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죽임

결국 그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멸망됨(살후2:8).

26절: 이 환상은 많은 날 뒤의 일에 대한 것

27절: 다니엘이 기진하고 놀람,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거의 멸절되는 일

이스라엘은 기쁨의 땅

제임스 닉스의 다니엘서 강해 참조 (*)

9절: 그 뿔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해 심히 커짐 작은 뿔은 북쪽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기쁨의 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재물이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지역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때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이곳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다.

9절에서 주님께서서는 이곳을 ‘기쁨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

(시48:2) 시온 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레14:33-34, 먼저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셨다.

속2:10-12,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셨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셔야 한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땅에 거하셔야만 비로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호9:3,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주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마귀가 이 땅을 미워하는 이유이다. 마귀와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거부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땅도 거부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만이 주님의 땅이라 불린다.

사26:1-4,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유다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삼상13:19, 또한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창40:15,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히브리인들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히11:8-10, 주님께서서는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요약하면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땅을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주님의 땅, 이스라엘의 땅, 유다의 땅, 히브리인들의 땅, 약속의 땅,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기쁨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8장 결론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나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유대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살아남았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말3:6)

다니엘서 9장: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

성경의 예언은 제대로 잘 선포해야 한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였다(신18:20-22).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보고 문맥 안에서 무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단8-1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다.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마24-25, 계4-19는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다.

9장의 배경

1절: 다리오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고레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짐(단5:30-31), BC 539년

7장은 벨사살의 제1년(BC 553년경), 8장은 제3년(BC 551년경)

그러므로 9장은 8장 이후 12년 정도가 지난 뒤 주어짐

2절: 예레미야서를 통해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임을 알게 됨

‘주의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25:1-14: 포로 생활의 이유와 기간(11-12), 렘29:10-14도 기간(특히 10절)

70년인 이유: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레26:40-42; 대하36:19-21).

다니엘은 예레미야 대언자의 글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 보존: 렘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북북 찢어

화로에 집어넣는 대목이 있다(20-23).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기록하게 하심(27-28, 32). 시12:6-7; 마24:35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생활이 BC 606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끝이 날 것을 알았다.

3-19절은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3절: 기도를 위한 준비(금식), 그는 기도의 사람(6:10-11)

여기서 그는 특히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레26:40-45; 대하7:14)

금식은 신약시대에도 중요하다.

fasting: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금식했으며 이것은 본성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사실 이러한 때에는 몸이 영양분 섭취를 거부하면서 굶주림으로 인한 식욕을 유보시킨다. 성경을 보면 모세 이전에는 금식이라 할 수 있는 예가 없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처럼 40일 동안 금식한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신9:9; 왕상19:8; 마4:2).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 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자 할 때 금식했다(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20:26; 블레셋으로 인한 미스바 금식 삼상7:6; 다윗의 아이로 인한 금식 삼하12:16; 엘리야의 금식 왕상19:8; 느9:1; 렘36:9). 또 공적인 재난이 임할 때 그들은 특별 금식을 정하고 젓 먹는 아이까지도 금식했다(을2:16; 단10:2-3). 그들은 해가 질 때에 금식을 시작해서 다음 날 그 시간까지 금식했으며 또 매년 속죄일(7월 10일, 욥 키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하고 모두 금식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신문, 자기 쾌락 등을 금하는 것도 fasting이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어떤 금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을 암시한 적이 있다(눅5:34-35). 실로 그분의 사도들과 초기 신자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하며 금식하는 삶이었다(고후6:5; 11:27). 우리 주님은 금식의 관습을 인정하셨고 사도들은 필요한 때에 그것을 실천했다(마6:16-18; 행13:3; 고전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17:21), 없음 행10:30; 고전7:5; 고후6:5 금식 삭제: 마지막 예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금식은 다르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 것이다.

4절: 하나님 찬양,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 찬양(스9:3-5; 느9:5-6): 공훈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5-15절: 백성의 죄악 고백

7절: 바빌론 포로 생활의 이유

9절: 공훈과 용서는 주님의 것

10절: 우리의 죄

11절: 모세의 저주(신28)

12절: 예레미야애가(1:1-2; 4:1-4; 9-10)

13절: 기도하지 않음

14절: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6-19절: 공훈 간구, 은혜와 공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의 크신 공훈로 인해 간구를 드립니다.

19절: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20-27절은 기도의 응답과 70이레

20-21절: 기도의 응답

가브리엘(8:16)이 그에게 손을 내밈, 그는 바빌론에 있지만 영과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음 저녁 봉헌물을 드릴 때: 오후 3시경(출29:38-41; 왕상18:36; 행3:1; 10:30)

천사가 신속히 날아갔다고 하니 날개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총알, 화살, 미사일은 날개가 없어도 신속히 날아간다.

22절: 능숙함과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언과 관련이 있다.

23절: 네 간구가 시작될 때,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 모름

그 일과 그 환상(계시):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일,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 구체적으로는 24-27절에서 설명된 것, 8장의 환상이 아니다. 8장은 70년, 70이레 등에 대한 것이 아니다.

22-23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 일을 하게 하심(히1:14).

결론

은혜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자

다니엘서 강해 1부 다니엘의 70이레: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및 7년 환난기
단9:24-27

지난 시간 단9장, 1-23절

1-2절: 다리오가 바빌론을 점령하고 고레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즉 BC 539년에 다니엘은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울 것을 알게 됨

즉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 BC 606년에 시작되었으므로 3년만 더 지나면 끝이 날 것을 알았다.

3-19절: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것을 위해 그는 금식하며 백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다.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3절: 기도의 응답, 가브리엘(8:16)이 그에게 손을 내밈.

그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음(22)

23절의 그 환상은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생활 예언

오늘 < >, 유대인에게 최종적으로 작성된 것은 70년이 아니라 70이레이다.

70이레 예언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및 7년 환난기 일정을 보여 준다.

성경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70이레

24절: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

다니엘의 생각과 달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0이레를 정하였다.

70이레는 기간인데 여기의 이레는 단순히 일곱을 뜻한다. 그러므로 일곱을 70개 정하셨다. 그러면

일곱은 무엇인가?(우리가 아는 시간 단위: 7초, 7분, 7시간, 7일, 7달, 7년)

70이레 기간 동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6가지를 행하신다.

1. 죄와 관련된 것: (1) 유대인들의 범법을 그치게 함

(2) (이스라엘) 민족의 죄들을 끝냄

(3) 그들의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룸. 다니엘 당시 이스라엘(유다)은 죄와 불법으로 인해 포로 생활, 예수님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내용(1-21), 민족의 죄 문제, 어떻게 유다 민족의 죄를 처리하는가?

응답: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 문제 해결: (1) 온 세상의 죄들(요1:29; 요일2:2), (2) 교회(엡5:25),

(3) 이스라엘(사53:8), (4) 유다 민족(요11:44-52 특히 50절)

2. 의와 왕국과 관련된 것: (1) 영존하는 의를 가져온다. 주님의 재림은 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의로운 왕국(렘23:5-6; 31:31-34; 사51:6-8)), 의로운 통치(사4:2-6)

(2) 환상과 대언 불필요(사11:9; 합2:14; 슥13:1-4)

(3) 메시아의 기름 부음, 지극히 거룩하신 분(the most Holy) 혹은 지극히 거룩한 곳, 킹제임스 성경은 인격체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에스겔서 40-48장의 성전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메시아가 거룩히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이 6개를 통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됨.

예수님의 재림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스가랴서 12-14장을 보면 이에 대해 자세히 나옴.

(1) 유다(이스라엘) 민족의 죄들 용서, (2) 예루살렘 재건축, (3) 성전과 섬김 사역 회복

25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70이레 기간 설명, (*) 490년으로 일단 이해하고 뒤에 설명

70이레의 시작: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

1.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 칙령(BC 536, 스1:1-4): 귀환 명령, 성전을 건축하라 등, 스룹바벨 등이 돌아가서 BC535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BC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함(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

2. 아닥사스다 시대에 에스라 귀환(BC 457, 스7:12-26): 성전 예배의 부활과 섬김

3. 아닥사스다 시대에 느헤미야 귀환(BC 445, 느2:5-8): 성벽 건축

대다수 학자들은 25절 끝에 있는 것처럼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때'가 3번 즉 느헤미아가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시점으로 본다.

즉 70이레의 시작은 BC445년경이다.

70이레의 구성: 그 명령부터 메시아까지 7이레+ 62이레=69이레

26절: 메시아가 오는 때는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죽는 때

대다수 사람들은 이 일이 AD30년경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69이레는 대략 BC445-AD30년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단순 계산, 445+30=475년(365일의 1년). 그러나 성경의 1년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 그러면 대략 481.6년, 여기에 세속 역사 오차 1-2년, 그러면 약 483년).

69이레는 483년, $483 \div 7 = 69$

그래서 여기의 이레는 7년, 그러면 70이레는 490년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여기의 이레는 단순히 일곱을 뜻한다. 그러므로 일곱을 70개 정하셨다. 그러면 일곱은 무엇인가?(7초, 7분, 7시간, 7일, 7달, 7년..)

초, 분, 시간은 아니다.

이레가 7일이 되면 70이레는 490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360일 기준, 1.36년)

이레가 7달이 되면 70이레는 490개월, 40.83년(1.36년의 30배, 40.83년)

그러므로 이레는 7년이 되어야 한다. 490년(360일로 계산되는 1년이 490개 있는 기간)

26절: 62이레 뒤(총 69이레 뒤에) 메시아가 죽는데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

이것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 메시아가 끊어진다니(죽는다니)!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해: 사9, 평화의 통치자, 영원한 왕국..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하였다.

이 구절은 메시아가 두 번 오심(초림과 재림)을 분명히 보여 준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거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나이다"(요19:15).

그 뒤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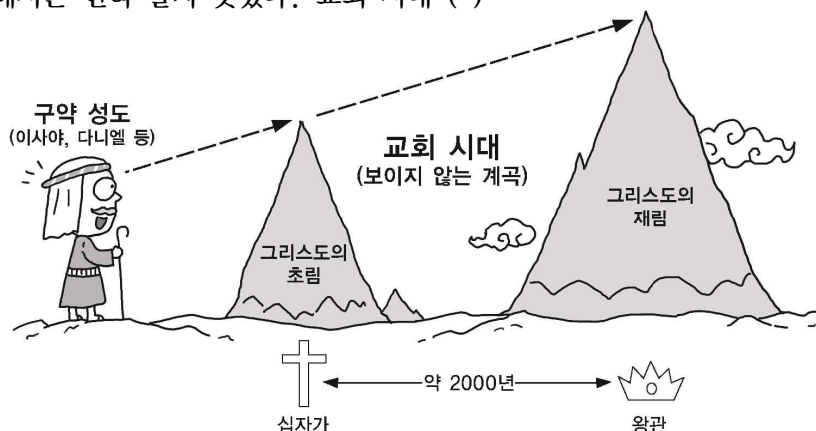
26절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갑자기 장차 임할 통치자가 등장해서 그 도시(예루살렘)와 성소 파괴, 홍수(계12:13-17),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됨(마24:15-16)

메시아의 죽음 이후로 시간을 건너뛰어서 맨 마지막의 재림의 때로 장면이 넘어감

메시아의 죽음 이후부터 7년 환난기 시작까지, 이 기간은 유대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이다.

교회 시대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다(엡3:1-13).

1. 구약시대 유대인들: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거하시리라는 내용도 들어 보지 못했다.
2. 그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온 땅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을 알았다(미5:2; 사9:6-7; 단7:13-14; 렘23:5-6).
3.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교회 시대 (*)



27절: 그(적그리스도)가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함(한 이레는 7년, 360일의 1년으로 된 7년)

그는 3년 반 이후에 자기의 가증함을 드러냄(살후2:3-4). (*)

후반부 3년 반: 큰 환난(마24:21; 계12:14),

적그리스도(단7:25-27; 8:23-25; 계13)와 그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롬11:25-27)

70이레 요약(*)

70일 계산

이 계산은 로버트 앤더슨이 처음 시작하고 그 뒤에 클라렌스 라킨, 해롤드 회너 등이 하였는데 모두 1-2년의 오차가 있다. (*)

1. Robert Anderson(1841-1918): <The Coming Prince>(1894)

2. Clarence Larkin: <Book of Daniel>(1929)

3. Harold Hoehner: <Chronological Aspects of the Life of Christ>(1977)

즉 전체적인 시간 프레임은 490일이 490년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세속 역사는 정확하지 않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연도, 날짜도 알려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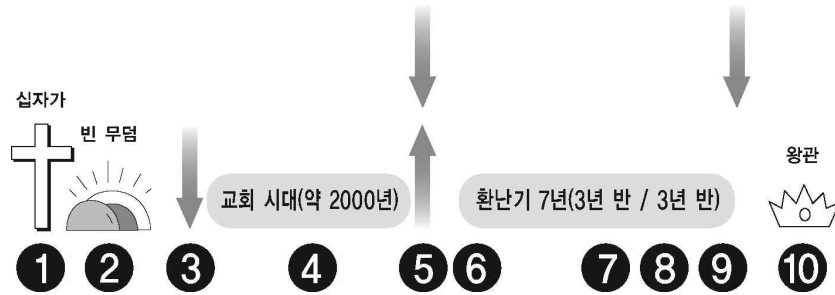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은 이런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전체적인 구조 면에서 70이레는 490일이고 그것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예언 달력으로 보면 483년이 된다고 다니엘서 강해에 기록하였다.

7년 환난기

I. 환난기

-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를 하늘로 데려가신 직후 환난기라고 알려진 7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이 7년은 '다니엘의 70번째 이레'(단9:24-27)로 잘 알려져 있다.
- B. 이 7년의 후반부 3년 반은 종종 대환난기로 불리는데(마24:21) 이는 그때가 세상(이스라엘)이 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환난기가 끝나자마자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생긴다(마24:29-30). (*)



1. 그리스도의 죽음(고전15:3; 롬5:8; 벰전3:18), 2. 부활(고전15:4; 롬1:4), 승천 행1
 3. 오순절 성령 강림(행2장):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일
 4. 현재의 교회 경륜(행15:14). 이미 2,000년이 지나갔음
 5. 휴거와 부활(살전4:13-18)
 6. 환난기 시작: 적그리스도와 언약(협약)을 맺음으로 7년이 시작된다(단9:27).
 7. 7년 중간에 이 언약(협약)이 깨지고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단9:27; 마24:15-21; 살후2:3-4).
 8. 예수님께서 '큰 환난'(마24:21)이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3년 반: 전무후무한 재난의 때로서 사탄의 활동이 가장 극심한 때가 되며(계12:2-12) 사탄의 사람이 땅의 통치자가 됨(계13:1-10).
 9. 환난기는 예수님이 큰 영광으로 땅에 임하심으로 끝날 것이다(마24:29-30; 계19:11-16).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왕국을 세우실 때. 흔히 천년 왕국 기간으로 불린다(계20장).
- C. 환난기: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계시록 4-19장
- D. 환난기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은 아직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다.
1. 가령 계시록 6장, 8장 7-12절에 등장하는 심판이나 역병이 언제 일어났는가?
 2. 언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는가(계13:1-12)?
 3. 온 세상이 한 사람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받은 적이 있었는가(계13:14-15)?
 4. 모든 사람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야 하던 때가 있었는가(계13:16-17)?

II. 특별한 고통의 때

- 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 그들은 이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결국 재림 때에 이 메시아를 받아들인다(마23:37-39).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순순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난 환난 즉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왕국을 세운다.
- B. 이스라엘의 환난기를 잘 이해해야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를 받는지, 환난을 통과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 신명기 4장, 다니엘서 2, 9, 12장, 스가랴서 12-14장, 마태복음 23-25장, 로마서 11장, 그리고 계시록 12장 등이 잘 설명해 준다.
- C. 이런 환난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 주신 환난 즉 재림 전에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환난이다(마24:21).

- D. 예레미야서 30-31장은 특별히 이 환난에 대해 잘 기록한다(렘30:6-9).
- E. 바로 이 기간이 환난기이다. 환난기의 1차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멸시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꺾테기를 제거하고 알곡만 거두려는 것이다. '야곱의 고난의 날',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30:7)
- F. 스가라서 12-14장 역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한다. 슥13:8-9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거주 전체 인구의 삼분의 이가 한 번에 죽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이 일은 세상의 창건 이래로 그 민족에게 없던 일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는 931만 명, 앞으로 1,000만 명 이상
- G. 환난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일이 연이어 스가라서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다.
- H. 예수님의 왕국 제안, 유대인들의 거절, 왕국의 연기, 재림 때에 왕국 시행, 그 전에 환난기 필요
- I. 이때에 교회는 휴거되고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다.

III. 환난기간: 70번째 이레

- A. 환난의 기간: 다니엘서 9장 25-27절의 70이레
- B.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아니라 70이레, 24절, 70이레는 490일이다. 483일+7일=총 490일, 여기의 하루를 실제 하루로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 1.36년 No! 하루를 일 년으로 보아야 한다(민14:34; 겔4:6). 거의 모든 주석가들과 목사들이 이에 동의한다.
- C.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는 BC 539년경, 그때 이후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때로부터 69이레 즉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 D. 느헤미야 당시 BC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 AD30년의 주님의 죽음, 30일을 기준으로 약 483년(태양력으로는 476년),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명령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483년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7년(*)

이 계산은 로버트 앤더슨이 처음 시작하고 그 뒤에 클라렌스 라킨, 해롤드 회너 등이 하였는데 모두 1-2년의 오차가 있다. (*)

즉 전체적인 시간 프레임은 490일이 490년이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세속 역사는 정확하지 않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 연도, 날짜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클라렌스 라킨은 이런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전체적인 구조 면에서 70이레는 490일이고 그것은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예언 달력으로 보면 483년이 된다고 다니엘서 강해에 기록하였다. 성경 바로 보기 (*), (*), (*), (*), (*)

E. 27절은 '한 이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한 주간(7년)을 의미한다.

F. 27절에는 '그 이레의 한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G.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난기는 후반기 3년 반이다. 즉 유대인들이 실제로 큰 고통을 겪는 기간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3년 반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이 3년 반의 기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1. 다니엘서는 봉인된 책(단12:4), 한 때 두 때 반 때(단12:7), 반 이레(단9:27)
2. 1,260일(계12:6, 11:3), 3. 마흔 두 달(계11:2; 13:5), 4. 한 때, 두 때, 반 때(계12:14)
-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며 반 때는 반년이므로 모두 3년 반이다. (*)

H. 환난기 동안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이다. (*)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세상에 임할 환난과 고통의 때로부터 교회를 떼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다.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4-19장까지는 환난기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미 휴거되어 없으므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계4-19장). 물론 '교회'라는 단어도 발견할 수 없다.

왜 다니엘서와 예언을 공부하는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예언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함이다.

사46:9-10

주님께서서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임을 입증해 보이셨다.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알고 계신다. 또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서는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운명을 예언하셨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셨다.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이 세상의 운명에 관해서도 예언하셨고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48:3-5,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연이라거나 환경이나 인간이나 우상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일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났다. 주님께서서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경에 예언을 기록해 두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바빌론을 다른 제국으로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바빌론의 권능을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의 권능을 그리스로 대체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체하시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주님께서서는 수세기 후에 미리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멸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수천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주님께서서는 다니엘서나 계시록 같은 책을 기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께서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큰 제국을 통치하는 막강한 왕이었지만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버렸다. 알렉산더도 큰 제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렸다. 이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이 한때 강력한 권력을 자랑했지만 이내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누구도 주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는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교

다니엘서 강해 19:

다니엘의 금식 기도와 응답: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

단10:1-21

다니엘의 70일: 유대인들에게는 최종적으로 70년이 아니라 70이레(490년)를 정하였다.
70번째 이레는 7년 환난기를 뜻한다: 적그리스도의 등장

| | | |
|--|------------------|-----------------------|
| 다니엘서 9장의 한 이레(7년, 42달,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 | | |
| 첫 3년 반 | 한중간 | 마지막 3년 반 |
| 마태복음 24:1-31 | | |
| 전쟁, 역병, 지진, 거짓 그리스도들(1-14) | 멸망의 가증한 것(15-19) | 창세 이후로 없는 큰 환난(20-22) |

9장은 다리오의 제1년 즉 BC 539년의 일

10장은 고레스의 제 3년인 BC 533-4년경에 환상 계시를 받은 것

단1:21의 고레스 1년은 왕의 신하로 재직할 때

고레스 1년(BC 536년): 유대인 포로 귀환, 스1:1-3, 2:1, 64(전체 회중이 42,360명)

다니엘은 15세쯤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다 채우고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도 보며 이제 88세쯤 되었다.

하나님은 10-12장을 통해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미래를 확실히 보여 주심

다니엘의 21일 금식(1-3절)

1절: 참된 일이 계시됨, 정해진 때는 길다(즉 유대인들의 마지막 때)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 계시에 대해 확실히 깨달음

2-3절: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며 애곡함, 1월에는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있다.

아마도 그는 새해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금식했을 것이다(4절을 보라).

금식하며 애곡한 이유: 잘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

(1) 포로들의 귀환, 그런데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음. 성전을 세우려 하니 반대자들이 나타나 방해하고 결국 작업이 중단됨(에스라 4장).

(2) 자기기 이미 받은 환상 계시에 대해 더 알고자 함. 죽기 전에 조금 더 확실히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록하기 원함

1월 24일에 영화로운 분이 모습을 드러냄(4-9절)

4절: 헛데겔은 티그리스 강

5-6절의 사람은 계1:12-16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다니엘은 이 존재를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였다(계1:17).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있다(단3:25; 7:13).

그런데 왜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주로 주의 천사로 나타나서 특별한 일이나 메시지를 주셨다(창16:7; 22:11; 출3:2 등). 여기서도 다니엘에게 그런 일을 하시려 한다.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마5:8).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계시된다.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미래(10:14)를 보여 주시기 전에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면서 확신을 주신다.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더해 주신다. 무리를 이끌 수 있도록.

9장에 전개된 환상 계시는 전적으로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다.

10-12장도 마찬가지이다. 기억할 것: 예언은 이중 성취를 갖는다.

천사(아마도 가브리엘)가 나타나 다니엘을 돕는다(10-21절).

10절: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영(히1:14)

11절: 크게 사랑받는 사람(9:23; 10:19)

12-13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남, 땅에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하늘에서도 영적 전투가

벌어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페르시아 왕들 뒤에서 그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

미가엘은 하나님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돕는 영(단12:1; 계12:9; 유9).

이것은 허구가 아니다. 루시퍼의 타락 때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타락해서 권력, 권능, 왕좌, 통치(골 1:16)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들은 힘을 못 쓰게 되었다(골2:15).

큰 제국들에게 배정된 악한 영들이 있다(territorial spirits).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의 뒤에 있는 마귀가 원치 않는 일

13절: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이 유대인들을 도와 줌(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

즉 가브리엘은 페르시아 왕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기에 있었음.

그러나 그들 뒤에 있는 악한 통치자가 그를 가로막음.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도와줌

개역 성경은 페르시아의 통치자를 '바사국 군'으로 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만들.

애굽, 바로, 요단, 앗수르, 바벨론, 아람, 다메섹, 아텐

14절: 다니엘에게 계시된 그 환상 계시는 그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임할 마지막 때의 일

15-17절: 다니엘이 기력을 잃음. 21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었지만 결국 주님은 미가엘까지 동원해서 응답해 주심. 힘든 영적 싸움

적그리스도의 등장, 7년 환난기 고통, 유대인들에게 닥치는 대환난

한국 교회에는 다니엘의 21일 금식을 모방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모방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방하려면 금식과 애곡을 해야 한다.

형식을 갖추지 말고 다니엘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본받으면 된다.

록 음악으로 뛰는 것은 전혀 예배가 아니다. 기도회 현장을 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할까?

이것을 오용하여 새벽마다 다니엘 21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천번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 샤머니즘이요, 성도들을 속이는 일이다.

18-19절: 다니엘이 강하게 됨

20절: 페르시아의 통치자와의 싸움이 끝이 아니다. 페르시아 통치자 다음에 그리스 통치자가 나온다.

그리스도 페르시아처럼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으나 후에는 아리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왕을 통해 유대인들을 심히 핍박하였다.

21절: 미가엘은 유대인들을 위한 천사, 진리의 성경 기록(11:2; 벧후1:20-21)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바빌론은 지금의 이라크(*)

메소포타미아의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이틀 후 양측의 사망자가 1500명, 이스라엘 800명 사망, 2600명 부상

1년이 지난 지금 가자 지구 사망자 42,000명

주택 8만 채가 부서짐, UN 개발 계획 발표, 가자 지구 재건 비용이 최대 55조원에 이르고, 복구에 약 80년이 걸릴 것이다.

하마스가 궤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공격을 감행함

이에 이스라엘은 골란고원과 레바논 국경 근처의 헤즈볼라 진지에 드론 공격과 포격을 발사함으로써 보복하였고 이러한 양상으로 분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상당한 민간인 피해와 군사적 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레바논과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대규모 인구가 피난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 레바논에서 무선호출기 동시다발 적 폭발 테러가 발생하였고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나스랄라 제거, 지휘관들을 다 죽임

예멘의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과 함께 자칭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무장세력) 일원인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이슬람저항군(IRI)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이란 중심의 저항의 축: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민병대, 후티 반군 (*)
 문제는 이란이다.
 이란은 10월 1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제거 등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발사했다.
 이에 따른 이스라엘의 재보복도 임박하며, 이란의 원유 시설과 군사 시설, 핵 시설 등이 잠재적인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이 조금 더 불리해 보인다.
 이란은 국토가 이스라엘보다 몇 배는 크기 때문에 공습을 해야 하는 영역이 너무 넓은 반면 이스라엘은 국토가 작아 공격받는 영역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1000km이상 떨어져 있고 다른 터키,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거치지 않고 이란에 갈 수 없다. (*)
 이란 경고: 영공 개방 국가 그냥 두지 않겠다.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으로 모두 미국의 동맹국(*)

이란 핵시설 파괴?

이란은 20여 년 동안 핵 개발, 오바마 등이 눈감아 줌으로써 거의 완성 단계
 북한의 도움
 트럼프: 당연히 해야 한다. 이번이 가장 좋은 기회, 걱정은 나중에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

곡과 마곡의 전쟁: 러시아, 터키,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격하는 일(겔38-39장)
 (*) 아마도 7년 환난기 이전

아마겟돈 전쟁 7년 환난기 끝

이런 전쟁들의 핵심: 이슬람 세력. 이 세력의 중심에 이란이 있다.

성경에서 이란은 엘람 혹은 페르시아(기존 성경의 바사)로 나온다.

엘람은 셈의 아들(창10:22), 노아의 손자, 만아들인 것 같다.

엘람 사람들은 활을 잘 쏘며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사22:6)

이란은 성경의 페르시아, 원래 페르시아는 친 이스라엘 국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에스더(아하수어로, 하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나라 이름은 고레스 시대로부터 1935년까지 페르시아, 그 뒤 이란

근래에도 친이스라엘 국가,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도 이란은 친이스라엘

1950년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 국가로 인정함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란 혁명, 그 뒤 급진 이슬람 정권, 그전과는 달리 극심한 반 유대인, 반미 정책, 친 러시아 정책, 아무도 이란이 친 러시아로 설지 못했다.

호메이니는 신정 정치 구현. 서방 문물 배격, 1979년 11월 4일, 미국 대사관 점령, 52명 인질 미국을 '엄청난 사탄'이라 부름, 어리석기로 유명한 카터 때 일어남

1989년 호메이니 사망, 그러나 이란은 국제 테러, 유대인 박해, 7세기경의 이슬람 국가로 돌아감, 이들은 현재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소유하고 핵을 탑재하려 함

러시아가 이를 지지함, 또한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제공, 이란과 미사일, 핵 프로그램 공유
 이란의 목표: 미국과 이스라엘을 짓밟겠다. 이란 대통령, 이스라엘을 핵무기로 멸절시키겠다.

이란에는 과학자가 많다. 머리가 좋다. 가장 강하다.

이란은 오래 전부터 핵무기를 제조하려 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이미 핵폭탄 3기를 수입했다는 보고
 항상 거짓말, 협약 무시,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

이란 관련 다니엘, 예레미야의 대언(렘49:34-39)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의 기도: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응답을 기다리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 영이 천사가 가지 못하게 막음(*)

미가엘이 도와줌(*)

페르시아 이란이 재림의 때에 악한 일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됨

예레미야 49장 34-39절

하나님께서 이란의 활을 꺾으신다(35).

그들의 힘의 으뜸 되는 것, 아마도 핵전쟁(36)

완전히 멸절되어 살아남은 이란 사람들이 모든 국가로 피난감(36).

엘람의 수치(37)

하나님께서 직접 왕좌를 엘람에 세우신다(38).

결론

다니엘서 10장, 마지막 대 유대인들에 대한 환상 계시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가로막음

계시의 내용이 너무 혹독해서 다니엘이 힘을 잃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의 중심인 이란은 페르시아에 존재하던 하만의 영이 다스린다.

하만 유대인 멸절(에스더기)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장 미가엘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자.

다니엘서 강해 20: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안식교)의 유래 및 문제: 다니엘서 6-9장
지금까지 19시간에 걸쳐 1장부터 10장을 강해하였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 지나해 10월 하마스 전쟁, 미국 대학들의 반 이스라엘 데모, 전 세계적인 반셈족주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 중 말세,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 이슬람, 인간 복제, 우주 탐사, AI, 가장 확실한 것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래서 다니엘서 강해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 예언을 담고 있다. 다니엘서는 특히 이스라엘 및 성경 전체 예언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단지 지식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구원, 성화, 진리 투쟁

하마스 전쟁 그 이후로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 공격, 일촉즉발의 상황

다니엘서 11, 12장은 매우 길고 복잡하다. 11장은 45절(길다). 12장은 13절, 그런데 12장을 이해하려면 11장 36절부터 보아야 한다.

즉 11장 1-35절까지는 그리스 왕국 이야기(특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11장 36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적그리스도와 7년 환난기 이야기

11과 12장은 따로 떨어진 장이 아니다(12장 1-2절 설명).

이 부분을 동시에 설명해야 하므로 이것은 다음에 2시간에 걸쳐서 하고 오늘은 다니엘서 8,9장에서 나오는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오늘 < >, 안식교는 다니엘서 8,9장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잘못된 교리를 믿는 시스템이다.

우리 주변에 안식교 포교하는 사람들, 유튜브 설교자들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기에 알린다.

이들도 다니엘서, 계시록 강해 등을 하므로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잘못 듣다가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유튜브 등에서 다니엘서 강해를 찾으면 안식교 교리를 가르치는 강병국 목사의 것이 있다.

12개

생애의 빛 선교 단체, 유튜브 채널, 안식일 교인들에게 견고한 토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회(이하 SDA)에서 제명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근본 뿌리는 안식교이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분은 안식교 교리를 가르친다. <생애의 빛> sostv.net

우리나라 안식교 전파의 일등 공신, 채식주의자 이상구 박사, 건강 세미나, 앤돌핀

그는 6년 전에 안식교를 떠났다. 이유는 끝에 설명하겠다.

안식교(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세상의 좋지 않은 것들은 대개 1850년대 이후에 생긴다.

진화론, 공산주의, 현대 역본, 안식교, 여증 등

1. 역사: 밀러주의에서 시작됨(*)

A.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 1782-1849), 1782년 매사추세츠 주 피츠필드에서 출생, 회의론자였으나 1816년에 개종함(34세). 침례교 목사

(1)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뒤 다음과 같은 시한부 종말론의 결론을 내림: "1818년에서 25년이 지난 1843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2) 그 뒤 4년여를 더 공부한 뒤 공식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자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름.

(3) 밀러의 날짜 계산 방법:

a. 다니엘서 9:24-27(70이레)을 인용함

b.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날(BC 457년)로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 2,300일이 지나야 함(단8:14). 9:27과 8:13을 같은 사건으로 본 것으로 보임

c. 성소가 정결케 됨=예수님의 재림, 하루=1년, 그러므로 BC 457부터 2300년이 지나면 1843년이 됨. 1843년 3월 21일부터 1844년 3월 20일까지 1년 사이의 어느 날

d. 그러나 밀러파 추종자들의 실망 속에 1843-1844년 3월 20일이 지나감. 그래서 다시 정교하게 계산, 그 결과 1844년 10월 22일, 역시 허무하게 지나감. 그들은 이 사건을 '대실망'이라 부름.(The Great Disappointment)

e. 그 이후 많은 이들이 밀러파를 떠났지만 여전히 다수는 재림을 기다림.

B. 히람 에드슨(Hiram Edson, 1806-1882) (*)

(1) 역시 밀러 추종자중의 한 사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상을 봄

(2) "주님께서는 천상의 성소에서 나오셔서 2300년이 되는 해인 1843년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천상의 성소 안에 있는 둘째 방(지성소)에 들어가심. 왜? 그분께는 재림 전에 할 일이 남아 있음"(레16:15-16)

(3)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매일 매일의 사역이 있고 일 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함

(4) 매일 사역: 수세기의 기독교 시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매일 사역을 해 오심. 그 결과 죄는 용서받았으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님.

(5) 연중 사역: 1844년 10월부터 죄를 없애 주는 사역이 시작됨. 이 일이 끝나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

(6) 여기에서 안식교의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것이 나옴(Investigative Judgement).

즉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로 재림할 때까지 모든 신자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C. 조셉 베이츠(Joseph Bates, 1792-1872) (*)

(1)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날이 안식일이라는 교리를 확립, 안식일 준수=구원의 조건

(2)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

(3)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봉인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봉인이 바로 안식일임

(4) 봉인 받은 자의 수효가 144,000명이며 바로 이들이 안식교인들임.

D.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 1827-1915) (*)

(1) 제칠일 예수 재림 안식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1827년 감리교 가정에서 탄생

(2) 평생토록 병으로 고생했고 어려서는 마비 현상이 자주 나타났음

(3) 1840년, 1842년 윌리엄 밀러의 강연을 들은 뒤 그녀의 가족은 모두 밀러주의자가 됨

(4) '대실망'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환상을 봄, 23년간의 사역 기간에 100-200번의 '펼쳐진 계시'를 봄

(5) 안식일 교도들의 신앙과 활동이 그녀의 환상이나 가르침 등에 의해서 고무됨.

(6) 1845년 2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을 봄, 이 환상을 통해 조사 심판 교리가 확증됨

(7) 1847년 4월: 지성소의 언약궤와 그 안의 십계명을 보았는데 제4계명 즉 안식일 계명에 승리의 광채가 나는 것을 봄, 이 환상을 통해 안식일 성수 교리가 확증됨

2.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400만 명의 신도들이 있음(주로 미국)

우리나라의 경우 삼육 재단(삼육 대학교, 삼육보건대학, 삼육중고등학교, SDA삼육어학원, 과거에 이상구 박사 등이 안식교와 관련되어 있음

국내에 약 25만 명

3. 재림 안식일 교회의 비성경적 교리 요약

A. 영혼 불멸 부인(부활 신앙), 영혼 소멸설, 성공회 존 스토티

B.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조사 심판)

C.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율법주의)

D. 이 외에도 십일조에 의한 구원, 고기, 커피 등을 금하는 것 등이 있음.

E. 채식 강조,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을 강하게 강조했고 여생을 철저한 채식주의자(vegan)로 살았다.

4. 날짜 계산 오류

안식교 설립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성소 정결까지 2,300일

성경에는 예언의 날이 있고 그 경우 하루가 1년으로 해석된다: 단9:24-27의 70이레

27절의 한 이레의 한 중간, 한 때 두 때 반 때(7:25; 12:7), 계시록의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42달 등을 보면 490일은 반드시 490년이 되어야 한다. 민14:34; 켈4:6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근거하여 안식교를 시작한 밀러(William Miller)는 단8:14의 2,300일을 2,300년으로 계산하였다.

계산의 기점을 BC 457년으로 잡고 2,300일을 2,300년으로 환산하여 1844년을 얻음.

그래서 예수님이 1844년에 재림할 것으로 예측하였다(예수 재림 제칠일 안식교회).

그 뒤 1844년 10월 22일로 재림 날짜 연기

일단 BC 457년도 틀린다.

느헤미야 당시 BC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 AD30년의 주님의 죽음, 이렇게 해야 정확히 483년 (태양력으로는 476년) 이후에 예수님의 처형이 있다.

단8:13-14의 2,300일은 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구절이다.

그것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당시에 그가 2,300일 동안 유대인들을 괴롭힌 기간이다.

마카비 전쟁, <다니엘서 강해 16: 적그리스도의 모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마카비 전쟁>

70이레, <다니엘서 강해 18 다니엘의 70이레: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및 7년 환난기>

2,300일 이후에 성소가 정결하게 됨(단8:13-14). 2,300일(6년 4개월 20일, 360일 환산)은 BC 164년 12월 25일부터 계산하면 BC 170년 8월 5일

사실 그 당시 안티오쿠스는 이집트를 치러 가면서(1차 침공)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살해하다가 결국 성전을 황폐하게 함.

4. 조사 심판: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 (*)

조사 심판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1844년 10월 22일까지는 하늘 성소에 계시다가 그날 드디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조사하고 계신다는 것

신구약 성경을 망라하여도, 1844년에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이나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다. 다만 에드슨, 화이트 등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 즉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히6:20; 9:12).

그들은 죄의 소멸 작업 혹은 진정한 속죄가 1844년 10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를 마련하는 희생을 드렸으며 승천 후에는 이 희생 헌신을 적용한다고 가르침.

현재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조사 심판'하여 믿는 자 중에서도 '합격', '불합격'을 가리고 있는 중임.

그들은 '죄들의 사면 혹은 용서'와 '죄의 말소' 사이에 구분을 둬.

즉 사람이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침

그리고 실제적인 죄의 말소는 구원받은 뒤의 행위와 태도에 의해 결정됨.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함.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 반박 성경 구절: 엡2:8,9; 딤후3:5; 히9:12; 28; 10:18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떠난 이유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탈퇴(아마도 2018년경)하게 된 계기는 아마 2015년경에 약 3년 전 발생한

한 사건 때문이다. 안식교 소속 한 여집사가 이 박사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남OO 집사다. 암환자다. 의학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다는 가장 심한 ‘육종’ 환자다. 이 박사가 보기에도 절망스러웠다. 암 세포가 뇌는 물론, 폐, 간 등 온 몸에 모두 퍼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2달 넘기 힘들다는 병원 판정을 이미 받아 놓았다.

“그런 그가 나를 찾아와 털어 놓는 고민은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안식일교회에 40년간 충성 봉사해 온 분입니다. 그는 소속된 안식일교회 목사를 찾아가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냐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안식교 목사의 ‘지금 조사 중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목사님 3분을 더 찾아가 같은 질문의 상담을 더 해보았다고 합니다.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조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사하느냐고 물었답니다. ‘품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소위 ‘조사심판’이라는 안식교 교리를 그때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동안 그는 ‘조사심판’이라는 것을 ‘구원할 자를 찾는 것’이라고 여겨왔다. 한 마디로 ‘이상구 버전’이다. 그러나 남OO 집사를 만난 후, 보다 깊이 있게 안식교의 ‘조사심판’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40여 년을 충성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이다.

연구한 결과, 이상구 박사는 안식교의 조사심판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조사심판 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 박사는 소위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을 들어 조사심판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큰 죄를 지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성경 본문이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했다. 끌어안고 환영했다.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아들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다’는 표시다.

이 박사는 위와 같이 성경을 설명한 후, 조사심판 교리대로 위 성경을 다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고 했다.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받아들일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먼저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옆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는 성경 본문도 언급했다. 이 본문도 조사심판 식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하늘에 부락을 해서 조사해보겠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심판 교리를 성경을 이해하고 하면 엉망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예들이다.

결론

성경을 시한부 종말론의 예언으로 이해하면 무서운 결과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도 1992년 휴거 열풍

성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공한다.

다만 앞뒤 문맥을 보고 바르게 읽고 해석해야 한다.

예수님이 오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다니엘서, 대단히 귀중한 책이다.

열심히 읽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출처]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떠난 이유 | 작성자 EzraHouse
<https://blog.naver.com/dlaudgns1551/221407712370>